

# 이화동창

2013년 가을 제132호



- |    |                    |                                     |
|----|--------------------|-------------------------------------|
| 02 | • 가을의 시            | 9월, 가을의 깃을 잡다   김선진                 |
| 03 | • 총동창회장 인사말        |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많은 동창 뵙게 되기를 기대   조종남 |
| 04 | • 특집   2013 대바자회   | 화보로 보는 대바자회 스케치                     |
| 08 | •                  | 첫 바자와 2013 바자                       |
| 12 | •                  | 나는 이런 바자를 원한다                       |
| 16 | • 기획 시리즈           | 소설가 김선주가 만난 이화 경영인 윤허섭 회장           |
| 20 | • 기획 르뽀            | 국보 소장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 24 | • 이화 사워석           | 이정무 한라대학교 총장                        |
| 26 |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캄보디아 김은경                            |
| 28 | • 이화 홈페이지 개설       | Ewhain을 아시나요?                       |
| 30 | • 축하 합니다           | 이배용 이옥경 서현숙 유영숙 이순남 정미현             |
| 32 | • 아름다운 이화동창        | 청각장애 뛰어넘고 이태리 명품회사 당당히 취업한 김소정      |
| 34 | • 생활법률             |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법률상식 OX 퀴즈   천정아        |
| 36 | • 총동창회 소식          |                                     |
| 38 | • 대학 소식            |                                     |
| 40 | • 과·학부 소식          |                                     |
| 46 | • 국내·해외지회 소식       |                                     |
| 55 | • 모교 소식            |                                     |
| 59 | • 동창소식             |                                     |
| 62 | • 신입동창명단           |                                     |
| 74 | • 동창이펴낸 새 책        |                                     |
| 76 | • 2013 '이화인의 밤' 행사 |                                     |



## 편집위원

조종남(의학75) | 박유나(도예81) | 조경원(교육75) | 박경임(식영73) | 김효신(의학84)  
유영선(신방75) | 김선주(불문65) | 백수경(신방79) | 김경은(영문79) | 박경희(신방90)

2013년 가을 제132호 비매품 | 발행 · 2013년 10월 15일 | 발행인 · 조종남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3277-3386 · 3387

E-mail : [ewhaalum@ewha.ac.kr](mailto:ewhaalum@ewha.ac.kr)

편집 · 도서출판 문예바다(02-744-2208) | 디자인 · 박래후편집공방 [www.raehoo.com](http://www.raehoo.com) 02-742-9991

인쇄 · 독일인쇄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3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9월, 가을의 깃을 잡다

김 선진

국문66

고갤 들어 햇살을 마주해도  
팽볕은 스멀스멀 자꾸만  
등허리를 맴 돈다  
오늘밖에 없는 오늘이  
또 가고 있다  
여름내 며구름 하늘  
깊게 파인 이마를 흥건히 적시고  
장대를 들어 높이 찔러도  
신음소리조차 밸지 못 한다  
붉은 벽돌 담장 너머 빼져나온 나팔꽃  
시들하니 토라져 입술 빼물고 있다  
탱글탱글 열린 팽감  
무성한 잎사귀 틈새로 배시시 웃고  
그늘만 찾던 초록 바람도  
슬금슬금 눈치 보며  
아, 이제 어디 한번 마실을 나가 볼까  
9월, 기어코 가을의 깃을 잡다.

월간〈시문학〉신인상으로 등단  
시집으로 〈끈끈한 손길이로 묶어주는 고리는〉(총동의 두께만큼)  
〈숲이 만난 세상〉  
2012년 현대시인상수상

##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많은 동창 뵙게 되기를 기대

회장 조종남 | 의학 75

사랑하는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덥던 여름이 멀리 가버리고 높은 하늘에 떠 있는 자그마한 구름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올해도 저희는 많은 행사를 아름다운 이화 캠퍼스에서 열었습니다. 제 2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와 동창의 날 행사, 대바자회 등이 있었고 저희 행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지난 8 월 127년의 역사가 담긴 우리 이화 캠퍼스에서 세계여의사회대회도 있었습니다. 세계의 여의사들이 우리 이화의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이고 다양한 기능과 외관을 갖춘 ECC를 극찬하였을 때 이화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7년의 이화 전통과 역사 는 그 어느 것도 따라올 수 없으며 앞으로 더욱 훌륭하게 발전해 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보배 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큰 행사인 ‘이화인의 밤’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사상하는 ‘아름다운 이화인’ 상수상 후보들의 면면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이화의 향기를 뿜는 후보자들이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저희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 위원회’는 심사와 실사를 통하여 그 중 한 분을 ‘아름다운 이화인’으로 추대하려 합니다. 그러나 선정되지 않은 분도 역시 아름다운 이화인들이십니다. 더불어 더욱 많은 동창 여러분의 이화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사랑이 보다 더 큰 비전으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화사랑 글짓기 대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도덕경에 ‘나는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한다. 선하지 않아도 선하게 대함으로서 선을 얻는다. 나는 미더운 사람은 미덥게 대한다. 미덥지 않은 이도 미덥게 대함으로서 미더움을 얻는다.’는 글이 있습니다. 리더가 믿음을 줄 때 조직원들도 자신을 믿게 되고 결국은 그런 믿음대로 성장 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각 곳에서 지도자가 되어 계신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올 한해도 화합 과 사랑 속에서 마무리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1월 25일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동창 여러분을 꼭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올해 남은 시간동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하루 하루가 쌓여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특집 | 2013 대바자회

## 화보로 보는 대바자회 스케치

# 이화의 명물장터, 정성과 사랑 팔고 추억과 기쁨 사고

지난 9월 11일(수)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대바자회가 작년에 이어 생활환경관과 학생문화관 앞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학 동창회의 50개 학과와 5개 대학원, 25개 국내 지회가 참여하여 풍성하게 마련한 이번 이화 명물 장터는 총동창회 기금 마련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 마련으로 기획한 것이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열린 이번 바자회는 동창생은 물론 재학생과 졸업생, 보건센터 등 교직원들과 지역주민들까지 학과별 부스를 섭렵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들 외에도 부속유치원 학부모와 어린이들 등 바자회를 해마다 찾는 단골 이웃들의 발걸음도 분주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한다는 바자회 부스는 오전 8시부터 이미 각 과별로 장마당이 펼쳐졌다. 가장 안쪽에 자리잡은 총동창회 본부석에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 현지에서 직접 공수해온 폐루산 베이비 알파카 손뜨개 목도리를 색깔별로 걸친 임원들과 조금이라도 기금 마련에 보탬이 될까하여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티셔츠와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10시가 되자 가을비 속에 우산을 받은 동창들이 속속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정외과 졸업생이고 딸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이에요. 엄마 학교 구경도 시키고 옛날 학창시절 이야기도 들려줄 겸 함께 왔어요."

잠시 귀국한 딸의 손을 꼭 잡은 모녀가 다정하게 바자회 장터 곳곳을 누리는 모습이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작년 바자회도 비가 와서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소금이랑 스카프를 사서 유용하게 썼어요. 올해도 구석구석 들러보려 해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선혜(유아교육과 02학번) 동창은 긴팔과 반팔 면 티셔츠를 골랐다. 모두 13,000원인데 지갑을 털털 털어도 500원이 모자라는 12,500원밖에 나오지 않자 깨아 달라며 홍정한 끝에 나머지는 내년 바자회 때 내기로 합의를 보기도 하였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가을비가 본격적인 장마당이 펼쳐지는 11시가 넘어서자 잣아들기 시작하며 파는 손길과 사는 발걸음 모두 굉장히 분주해졌다.



그 중 문현정보학과 부스는 단연 인기 최고였다. 남대문시장에서 발품 팔아 물건을 엄선한 데다 국산 참깨를 집에서 손수 볶아 별도 용기에 정성스레 담아 내놓는 등 눈길을 사로잡는 소품들로 가득했다. 과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는 정정자 동창(87)은 과 선배와 후배 등 모두 동창들께 전할 것들이라 각별한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유방암이 전이되어 투병중인 과 동문을 돋고자 부스를 마련한 컴퓨터공학과에서는 마음만큼 뜨끈한 건강식 감자전을 부치며 정성을 호소해 마침 점심거리를 찾던 많은 동창들과 손님의 발길을 붙들었다. 오후 5시 마감장터를 향해가기도 전에 부스 안의 물건이 소진된 곳은 즐거운 웃음소리가 퍼져나가고 미처 팔리지 않은 상품 홍보를 위한 목소리도 드높았다.

"발랄하고 튀는 스카프로 우울함 날리시고 가을 멋쟁이 되세요!"

한 장에 오천 원 하던 스카프 두장을 같은 값에 팔며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부스에서 호객하는 목소리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불러 모으고 이번 추석 명절에 주변에 고마움을 전하려는 이화인의 마음도 온기로 차올랐다. 이 날 대바자회장의 이화 사랑과 동창들의 우정은 아마도 다음 바자회에도 고스란히 전달되리라. 은근히 다음 바자회를 기대해본다.

글. 박경희(신방90, 이화동창 편집위원)

# 바자참여 대학(원), 과, 지회

바자당일 품목 변경 있음

## 인문대학

국문 핸드백, 의류, 액세서리, 구두 소품

기독교 핸드백

독문 바지, 티셔츠, 가디건

불문 참기름, 삼양사식품

사학 아나바다 물품

## 영문

중문 여성의류(업체)–수입의류

철학 커피 외

## 사회과학대

정외 앤클렉션–의류

행정 스카프 출웨어, 가방

문화정보 오리고코리아, 보온, 보냉가방, 미역

신방 화장품, 베이글, 식품

심리 안나마리아–의류

사회복지 화분, 쿠키, 주먹밥, 커피, 솜사탕,

비누, 책(어린이 영어책)

사회 신양촌 간장 식품, 여주차,

경제 (주)LG생활건강 생활용품, 남성복,

빙과류(과일)

## 자연대학

수학 이광희패션(의류, 잡화, 액세서리)

## 통계

들리 손지갑

화학 종이브로치, 간장, 된장, 다시마, 블루 베리, 멸치, 다시마, 칫솔)오미자차,

과학키트(어린이)

생명 누비가방, 공정무역 커피–냉커피외 음료

공과대학 감자, 감자전, 커피, 의류

## 음악대학

피아노 치약, 김밥, 닭강정, 물 건강식품  
관현악 가방, 액세서리

성악 화장품 coesam 로즈힙 열매로 만든 화장품

## 작곡

한국음악 커피와 음료수(보온용),

샌드위치, 물 기증품

종교음악 의류지엔씨오, 가방

## 조형대학

동양 유기농 된장, 국간장, 오뎅, 액세서리,

골프웨어, 거울(손)–작품

서양 그림, 액세서리 기타

조소 작은 소품(그릇, 장식품 등 액세서리)

섬예 섬유악세사리 부제)원석 금속 비즈

생미 NR Inc–모피회사, 액세서리, 행주등 부  
업용품

장미(환경) 인테리어 소품(침구류, 이불,  
작은카펫, 테이블보, 향초 등), 음식–견과류,  
쿠키, 어린이의류, 휴름주서기, 음료

장미(복식) 의류, 액세서리, 패션소품,  
신발, 속옷 아동용품의류, 잡화

도예 clayu 공방, 영락도기,  
도림회(도자기, 액세서리, 양초 등)

## 체육대학

체육 건어물, 화장품, 김, 젖갈

무용 액세서리

## 사범대학

교육 커피(원두도 판매, 마시는것도 할것임),  
스콘(빵), 스카프

유아교육 액세서리, 훠미늘(건강식품), 명란젓

초등교육 고추장, 쌈장, 한과, 액세서리

영어교육 김밥/충무김밥, 아채해물부침개,  
생강호소원액, 매실음료수, 애장용품

## 사생

교육공학 식탁보, 도자기 냄비받침

특수교육 액세서리, 오토스타 제품–

자폐아동이 만든 작품

수학교육 스카프

보건교육 떡볶이, 빙대떡

과학교육 기증품, 의류

국어교육 주스+칵테일 알코올

법과대학 공정무역 제품– 의류, 잡화, 커피 등

## 경영대학

경영 악세사리 "자스민", 리디아스(여성의류)

국제사무 진저bag, 가죽파우치, 팔찌,

스카프

## 의과대학

간호대학 한증자연치유능력협회–  
발관리와 이입요법물품, 투어마린제품 등

약학대학 참기름, 들기름, 의류,  
핸드백 잡화, 의약품

## 생활환경대학

소인 MCM 핸드백, 타조 가죽 핸드백

의직 아웃도어(노스페이스), 티셔츠,  
건강보조식품(프로폴리스, 오메가 등),  
속옷, 커피

식영 조청, 추석용먹거리, 밀반찬,  
풍기인건스카프

대학원 주스 컵과일

## 교대원

## 디자인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비누, 색동지갑, 필통

정책과학대학원 화장품

국내지회 제주, 순천, 원주, 대구, 진주, 수원,  
울산, 거제

## 총동창회

의류 폐루 일파카 머플러 판매

티파니–여성의류

예승통상(와코루, 비너스 속옷, 양말)

은보석–예향

낙도선교회(통영 건어물 생선말린것)

버츠비(천연화장품)

경기 농림진흥 재단 농업마케팅부(잣,  
건나물, 떡 오)

라빈스(액세서리)

전통 간장, 참기름, 청국장, 버섯류

## 기증

윤후정 명예총장

장명수 이사장

김선욱 총장

윤순희 고문

김순영 고문

# 첫 바자회부터 금년 바자회까지 1966년에 시작하여, 23번째 열고 지금은 지역 ‘명물장터’

‘바자’란 말을 국문학자 이희승 박사가 편찬한 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바자(bazar) – 공공 또는 사회사업의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벌이는 시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작든 크든 바자회를 열게 되면 기금이 모인다.

총동창회가 바자회를 처음 개최한 것은 1966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창회보에 따르면 당시 김갑순(문과 35) 총동창회장이 3월 25일 동창기념관 건립기금 모금과 함께 이화 동창들이 한 점의 골동품이라도 소유하여 우리 선인들이 빚은 높은 예술성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조백자 600여 점을 전시하여 바자회를 열었다고 한다. 이 바자회



에서 400여 점이 판매되어 기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후 1969년 12월 11일 서울 YWCA 강당에서 모교 10년 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총동창회 연례행사인 ‘동창회 크리스마스 파티’와 겸해 개최되었다. 정충량(문과 39) 회장 때의 일이 다. 이 때는 각종 회사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시 증가보다 20~30 프로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여 동창들의 인기가 급증하여 ‘앵콜 바자’를 모교 체육관과 학생관 히터에서 다시 열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싸면 잘 팔린다.

1970년 대에 들어서면 1974년과 1975년 총동창회 바자가 본격적으로 열려 각 대학 동창회 별로 코너를 마련하고(그 때까지는 부스의 개념이 없다) 품목의 종복이 없게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300만 원을 기금 목표액을 정하고 시작했다고 한다. 최윤애(영문 49) 회장 시절이다. 당시 즉석 농두지침과 친만두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옷감, 스웨터, 텔실제품, 식품, 그릇, 휴지, 비누 등 생필품 외에 은 도금수저, 김장용 것갈 등도 판매되었다. 반세기 도 되지 않은 그 때와 2013년도 대바자회 품목을 비교해보면 참으로 경이롭고 재미있다.

그 후 3년 동안은 바자회를 열지 않았고 1978년부터 1992년까지(1980년 제외) 매년 바자회가 열렸다. 1978년(김세영 회장, 영문 50) 모교 과학관 건립 기금 모금 바자를 필두로 안영옥(양학 49) 회장, 이병립((가정 55) 회장, 장의순(사회 62) 회장 재임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기금 목표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1978년 당시 목표액 1천 만 원이었는데 결과는 초과달성을 1천2백63만



2005



2008



2012



4441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1원도 무시할 수 없는 돈이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목표액은 1천 만원으로 정했고 결과는 항상 목표액을 상회하였다. 총동창회는 모금액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모교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1982년 이화 100주년 기념 도서관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에서는 총 4천여 만원의 수익금을 올려 모두 모교에 현납하였다고 한다. 1983년 동창회보에 의하면 바자회에서 각 과가 올린 수익금이 명시되어 있다. 사범대학이 875만 원으로 으뜸이고 음악대학 460만 원, 약대가 400만 원 순이다. 과로는 국문과가 362만 원으로 으뜸이고 이 때 이미 대학원도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89년 장의순 회장은 ‘이화동창 문화회관’ 건립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10월 25일과 26일 양 일에 걸쳐 열었고 이는 93년 3월 퇴임 시까지 해마다 10월 중 연례행사로 이어졌다. 2일간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일이었을 터인데도 모교와 동창을 위해 ‘이화동창 문화회관’ 건립에 열정과 헌신을 쏟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2005년 윤순희(교육 65) 회장은 7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대규모로 확장한 바자회를 열게 된다. ‘이화삼성 캠퍼스센터’ 건립 기금 모금 바자는 4월 28일과 29일 생활환경대학과 학생문화관 앞에서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 특산품이 눈길을 끌었고 경매품도 있었다. 명사들이 기증한 다양한 물품이 경매에 붙여져 양일간의 바자회 수입은 9천 2백만 원이나 되었다.

2008년 김순영(약학 62) 회장은 총동창회 100주



년 기념 바자회를 5월 14일에 열었다. 총 47개 학과와 19개 국내지회, 평생교육원, 이영회와 여성최고지도자과정 등 모든 동창들이 총출동하여 5천 만 원의 수익금과 함께 경품 추첨으로 참여한 동창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도 하였다. 2년 뒤인 2010년에 열린 바자회에는 총 70여 개의 부스가 신설될 정도로 대바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2012년 5월 17일 총동창회 기금 마련 및 베트남 전쟁 시 버려진 한국계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을 위한 대바자회를 조종남(의학 75) 회장 주도 하에 생활환경관과 학생문화관 앞에서 개최한다. 오전 10

시부터 시작한 바자를 위해 55개 동창회 임원들은

아침 8시부터 부스에 상품을 예쁘게 진열하는 열성을 보였다.

갑자기 쓸어진 소나기 속에서도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한 이화 동창들 덕분에 이제 우리의 대바자회는 ‘홍겨운 장터’가 되었다.

금년에는 9월 11일, 추석을 앞두고 열려 지역 주민들까지 바자회장을 찾아 알뜰 구매를 하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대바자회가 열린다는 소리에 많은 동창들의 귀가 쫑긋하며 호기심을 안고 저절로 발길이 모교로 내딛어지기를 기대한다.

글. 유영선(신방 75, 총동창회 홍보부장)

# 나는 이런 바자를 원한다

아래 원고는 도착순으로 게재

우리가 함께 해냈다는  
뿌듯함, 다시 느끼고 싶어

김이숙(불문87)

지난 9월 11일 대바자회를 맞아 아침부터 부슬부슬 내리는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김없이 천막 아래에서 오전10시에장을 벌였다.

“아이구, 장사 정말 자알 되겠다... 날씨가 화창해도 팔릴까, 말까, 할 텐데...”

“날씨마저 받혀주질 않아요, 않아...” 등 염려와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 우리 불어불문학과는 순국산 참기름과 들기름 세트 50박스(100병)와 (주)삼양사의 협찬으로 인

스턴트 식품, <밥 맛의 비법>과 <면발의 비법>을 판매했다. 우리가 가판대를 차리고 정리하는 동안에도 비는 여전히 줄기차게 내렸다. 천막 위에 모였던 빗물이 후두두 떨어져서 고스란히 웃옷을 적시는 불상사마저 당하고 보니 정말 내 기분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만일 팔리지 않으면, 남은 참기름병과 라면박스를 이고지고 추적추적 비 내리는 교정을 걸을 생각에 벌써 온 몸이 쑤셔왔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우리 불문과의 참기름 세트와 컵밥, 컵면은 인기 폭발로 오후 2시 30분 이미 동이 났다. 선배님들의 수년간 바자 경험에 힘입어 판매물품을 잘 선정한 덕분도 있지만, 빗 속을 뚫



고 바자를 열고, 또 바자를 찾아주신 동문들의 성원도 컸다. 수익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타 과에 비해서 이른 시간에 벌여 놓았던 가판대를 정리할 수 있었다. 오후가 되니 어느새 비는 그치고 햇살이 깔끔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우리는 '드디어 해냈다!'라는 만족감으로 서로서로 함박 미소를 주고받으며 앞치마와 그날 수익을 정리했고 웃음꽃이 만발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바자회를 끝내고 우리 얼굴에 웃음을 준 것은, 비가 개이고 맑아지는 하늘도, 성공적인 매진 달성도, 높은 수익금도 아닌 것을... 우리의 커다란 웃음은 우리가 함께 해냈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정이고 이화의 사랑, 이화인의 사랑인 것을. 다음에도 또 이런 마음 느끼고 싶다.

### 학과별 특징 알리는 자선코너 열렸으면 하는 바램

이재온(간호75)

해마다 총동창회 바자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매년 관심을 갖지는 못했었다. 때문에 간호대학 바자회 품목을 결정하는데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늘 모교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회장님의 노고에 감동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화발전을 위해 크게 후원하시는 동창분들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나도 좋은 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함께 들었다.

나는 한중자연치유능력협회장, 한국보완대체요



법간호사 회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연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며, 여러 가지 대체요법에 대한 교육과 봉사, 그리고 간호사로써 건강상담과 투어마린 제품(Gem Therapy)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도 하고 있다.

이번 바자회에 참여하면서 간호대학 대표로써 3 가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였다.

첫째는 대체요법 중에 힐링이압을 홍보하고 이화식구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힐링이압은 귀를 검진한 후 이상이 보이는 귀 표면에 씨앗을 붙여서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미병(未病) 상태를 스스로 관리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간단한 Therapy이다.

두 번째는 지구상에 전기성질을 가지고 신진대사에 좋은 효과를 일으키는 유일한 원석-투어마린 제품을 홍보하고 Gem Therapy에 대하여 알리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로써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비가 하루종일 온다는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염려하며 학교에 도착해 보니—우리 회장님께서 장소뽑기를 잘 해주셔서 넓고 여유로운 코너에 ‘간호대학’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봉사하기에 딱 좋은 자리 확보! 게다가 후배들이 교대로 와서 도와주니 더욱 감사! 다른 대학은 오로지 판매에만 전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건강관리를 위한 힐링이압봉사,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투어마린 목걸이, 팔찌 판매와 간호계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3가지를 열심히 하였다.

힐링이압을 받으신 다른 대학 동창분은 고맙다고 먹거리까지 갖다 주셨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터라 얼마나 큰 일용할 양식이었던지 더욱 감사했다. 바자회 후에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고 더욱, 감사한 것은 수입이 훨씬 컸다는 것이다. 우리 수준으로는 대박이었다. 수입보다 건강100세를 위한 보완대체요법을 봉사하는 일에 주력했는데 경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다른 학과에서도 학과별 특징을 알리는 자선코

너가 열렸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정말 바람직한 힐링의 하루였다. 다음 번 바자를 기대해본다.

## 동창 모임일 바자회에 맞춰 더 많은 동창들 모이기를

장세리 (법학 80)

야단법석 바자회가 지나갔다. 우리 동기들은 이미 석 달 전부터 바자회에 맞춰 만나기로 했다.

비가 왔지만 친구도 보고 바자회도 간다는 반가운 마음에 날씨쯤이야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고 싶은 대로 지그재그로 기웃거렸다. 각 과별 장기자랑 하듯 물건을 들고 펼쳐 보이며 선전하는 동창들 모습은 급변신한 가게 주인 그대로였다. 말만 잘하면 에누리에다가, 사장님의 자발적 할인까지 해주는 통큰 바자회였다.

서로 스타킹과 주방 수세미를 사서 나눠 주고, 천 원짜리 그럴듯한 스카프를 사고 자랑스럽게 흔들어 보이는 친구 덕분에 웃자지껄했다. 몇 바퀴를



돌며 횡재를 놓칠 새라 살살이 훑어보았다.

마지막으로 법학과부스에서 공정무역제품을 구경했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자연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생산한 밀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가 담긴 물건이어선지 수수한 색과 소박한 질감에 손길이 갔다. 머플러, 가방, 브로우치 등 수공예 소품을 하나씩 만지작거리다 강아지와 고양이 캐릭터로 바느질한 아마씨안대를 구입했다. 오지 못한 친구들 것까지 사며 서로의 눈에 올려놓고 강아지나, 고양이로 할거냐 하면서 옥신각신 하기도 했다.

2013년 바자회는 이제 추억이 됐다. 동창들 얼굴과 웃음소리, 커피향, 부침개 냄새들과 함께 뒤에 남았다. 앞으로도 계속될 바자회는 더 많은 동창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게 바램이다.

우선 동창 모임일을 바자회에 맞춰볼 것을 권하고 싶다. 또 만 원 정도의 바자회 상품권을 만들어서 미리미리 판매하면 서로 선물도 하고, 기금 마련도 하면 바자회에 오는 것도 쉬울 듯하다. 잔치집에는 무조건 손님 많은 게 최고다. 내년에는 그동안 보지 못하고 지낸 동창들이 많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 명문대 명물장터 소리듣는 분위기 갖추는 노력 필요

장윤희(신방 78)

바자회날 비가 와서 동창들의 관심과 참여가 적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분위기도 좀 어수선하고



날씨가 읊울한 탓에 읊씨년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다음 번 바자회에는 이런 점을 미리 개선하여 우천 시에는 바자회를 실내에서 개최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또한 각 과의 명칭도 아크릴판 같이 딱딱한 재질로 만들고 서체도 같은 것으로 통일하여 표기하는 것이 시각적으로도 좋고 찾기도 쉬울 것 같다.

바자회를 찾아온 동창들이나 초대받은 친척 또는 주변 지인들이 자신들이 찾고자하는 해당과를 찾아다니느라 애쓰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각과 명칭의 적절한 표기는 꼭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닐까 싶다. 물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바자회장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잇점도 있겠지만 말이다.

이제 이화의 대바자회는 지역 명물 장터로 자리 잡았다고 들었다. 그러나 동네 일일장 분위기를 벗고 명문대 명물 장터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러한 분위기를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글로벌 기업 성장 꿈 이루고 나눔 세상 실천하는 합리적 리더 윤혜섭 회장 (교육심리76)



1992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1983 한국야금(주) 이사 피선  
1995 (주)다인정공 이사 피선  
2013. 09. 27 혼한국야금(주) 이사(회장)  
현(주)다인정공 대표이사  
2010 시흥시 여성상 수상(경제부문)  
2011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 수상

●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업의 귀감이 되는 주식회사 한국야금과 다인정공의 최고 경영자로서 모교를 빛내고 동문과 후진들에게 귀감이 되고 계신 윤혜섭 회장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장께서는 1976년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셨는데, 그 시절에는 다소 특이하다고 할 심리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미대에 가고 싶었는데, 아버님의 반대로 못 가고, 평소에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기에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교육심리학과였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공부를 해보니 매우 매력 있는 학문이었어요. 심리학이란 자식들 교육에서부터 살아가면서 무

수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회사를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이대에서 만난 친구들과 은사님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에 남을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과 학생이 전부 30명이었는데, 이화여고를 졸업한 저는 이화동창들과만 어울려 지냈어요. 그런데 졸업여행을 가서 친구들과 모두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거리감이 좁혀지게 되면서 그동안 다른 친구들이 여고 동창들끼리만 몰려다녔던 우리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과 동기생들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모두 하나가 되어 격의 없이 친하게 되었어요.

그 기쁨이란 대단했어요. 집단생활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정을 나누는 참다운 인간애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며 늙어가고 있는 동기생들과 함께 올해는 환갑여행을 하면서 대학시절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웃고 떠들며 너무나 즐거웠어요. 또 대학에서 배운 카운슬링 교육은 청소년에 대한 심리와 서로 다른 인간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김재은 교수님의 ‘인지 심리학’ 강의가 학문적으로 깊이 통찰할 수 있어서 흥미가 있었고 유익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하셨으며, 결혼은 언제 하셨는지요? 또 자녀분은 몇 분을 두셨는지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결혼했으니까,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곧장 주부가 되었지요. 아이들은 남매를 두었어요. 20여년을 아내로 어머니로 가정에만 충실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던 남편이 1994년 건강검진에서 간에 이상이 발견되었어요. 남편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저를 회사에 끌어들였어요.

저는 그 때 절대로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남편은 살림을 잘 하는 사람은 회사도 잘 경영할 수 있다면서 저를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복장이며 액서사리, 말투, 직장인으로서의 태도까지 일일이 지적하며 소위 ‘아줌마와의 결별’을 선언했지요. 저는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면

너무나 암담해서 울고만 싶은데, 남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은 열심히 회사 일을 배우며 웃으면서 살자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3년이 갔고 ‘즐겁게 살아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지 주소를 달리하는 것뿐이다.’라고 다독거리면서 저의 손을 꼭 잡은 채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배반하는구나 하는 서러움과 원망으로 한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의 회사를 이어가는 것이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본격적으로 회사에 매달리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너무나 서툴고 힘든 일이 많아서 올 틈도 없었고, 오직 그가 신신당부했던 웃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말을 따르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마다 가정이나 회사는 똑같이 통합적인 메니지먼트라는 남편의 말을 되새기면서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donduhan\_beolmok\_in\_a\_doll, 팔과 함께



● 윤회장님의 사업을 하시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17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셨을텐데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는지요?

무엇보다도 오너의 부인으로 회사 일을 시시콜콜히 잘 모르는 40대 여자라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해서 일머리를 꿰뚫어보고, 파워가 막강한 임원들이 저를 어떻게 보았겠어요? 1순위여야 할 저의 회사 결제 순위도 5위 6위로 밀려나는 경우에도 저는 억울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어 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저 유능하고 막강한 남자들을 설득하여 저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까?' 저는 수없이 기도하며 투쟁과 제압을 반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회사 일에 몰두했어요.

그때, 제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던 것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1997년 IMF가 나면서 회사는 무척 어려워졌지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30% 이상이었고 환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면서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몹시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인내는 물론이고 먼저 무릎을 꿇고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겸손의 필요성을 절감했지요. 결국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면서 글로벌 마인드가 뛰어난 사장으로 과감히 교체하기도 하는 등 어려운 일들을 직접 해결해 나가면서 차츰차츰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회사가 발전할수록 저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로 키우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지금 그 꿈이 어느만큼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직접 일하면서 진정한 경영의 묘미를 터득하며 즐겁게 일하게 있습니다.

● 주식회사 한국야금과 다인정공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야금(주)에서는 자동차, 항공기, 공작기계 등의 다양한 금속 기계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초경공구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금속을 가공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가 제일 바람직하지만 너무 비싸니까 경제성과 효율을 고려해서 다이아몬드만큼 강한 '초경공구'라는 특수한 공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주요산업 분야에서는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계공구지요. 금속 기계마다 모두 다른 모양이기에 거기에 맞추어 가공하는 초경공구가 이만여 가지나 되어서 저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주)다인정공은 그 공구들을 공작기계에 장착할 때 사용하는 툴링시스템(Tooling system)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 회장님께서는 기업경영 이외에도 장애인 및 불우이웃 아동과 미혼모와 노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성경공부를 하는 모임 중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지적장애인과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돌보는 서울 배다니학교라는 곳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참으로 좋은 일이기에 그곳에 후원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한국야금이 있는 청주에 배다니학교(유스투게더)를 직접 설립하여 장애인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장애인들을 가르치면서 장



애인들이 커피를 만드는 춤추는 북카페 등 직업훈련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 외에도 노인복지법인, 아동보육시설, 무료급식소, 미혼모와 외국인 노동자들 돋기, 소년소녀 가장에게 매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 사원들과 함께 지원하고 그 외 개인적으로도 지원하고 있어요.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회장님은 특별한 생각과 의지로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 경영자로서의 기본 철학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며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저의 경영 철학은 인간존중, 시장중심, 미래중심입니다. 저는 3H 정신으로 일하고 있어요. ‘목표는 높게, 생각은 긍정적, 우리의 꿈은 행복 추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즐겁게 일하는 ‘Fun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나 외롭고 암담하고 힘든 경우를 수없이 당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비로소 얻

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지요.

●동창회와 동창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 동창님들께서는 여성만의 대학을 다녔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여자라고 주눅이 들 필요도 없지만 남자와 똑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각기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남자와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 금속 부품의 요철이 서로 꽉 맞물릴 때, 하나의 완성된 기계가 만들어지듯 이 여성 남성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보다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동창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 총동창회 회장님과 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글. 김선주/불문 65 한국소설분과 회장, 이화동창편집위원

## 국보 소장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위에서 보면 배꽃 모양 건물, 자랑스런 소장품 25만 여 점

개교 이래 국내외 최고, 최초를 지향하는 우리 모교 이화의 다양한 건물과 시설들을 시리즈로 집중 탐색하는 난을 마련하였다. 이 난을 통해 동창들이 모교를 찾아 자주 발걸음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호에는 이화가 자랑하는 국보와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을 소개한다. (연집자 주)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이화여대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위치한 현대식 건물이다. 계단 너머의 대강당, 정면에는 초 현대식 ECO관, 그리고 그 너머에 본관 건물 등으로, 꽤 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다. 박물관은 1935년에 본관 109호실에서 처음 개관했고, 1950년 대에 여러 교수와 동창들로부터

많은 유물을 기증받아 확대되었고, 1960년 대에는 박물관 단독 건물을 신축하여, 체계적인 유물정리, 학술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박물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90년에는 개교 100주년 기념 박물관으로 신축 개관하여 그 후 한번의 증축을 거쳐 지금의 건물로서 있다. 특이한 것은 박물관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배꽃 모양으로 5개의 꽃잎이 보인다고 하는 점이다.



오진경 박물관장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 조선 18세기, 국보 제107호, H. 53.3cm

##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유물 25만 여 점 국보와 보물 등도 소장

이대 박물관은 대학박물관으로서 하나의 분야가 특화되기보다는 다양성과 가치의 우수성을 자랑한다. 도자기, 의복, 목공예, 회화, 금속공예품 등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유물 25만 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물인 국보 제107호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를 비롯하여 청자순화4년명 항아리, 기사계첩 등 보물 11점과 중요 민속자료 3점, 등록문화재 1점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대학 박물관이 국보급, 보물급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오후에 박물관 건물로 들어가니 과거가 꿈틀거리며 보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시관은 1층에 상설전시관, 2층에 현대미

술전시관과 기획전시관, 지하1층에 기증전시관과 담인복식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관은 해마다 새롭게 기획되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수하고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마침 운이 좋아 전시 중인 국보 제 107호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를 볼 수 있었다. 높이가 53.5cm로 18세기 조선시대 왕실 관요인 사옹원에서 제작되어 왕실의례에 사용되던 것으로, 철화로는 보통 명암을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 항아리에 그려진 포도나무는 명암이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김활란 전 총장께서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보



는 눈이 남다르셨던 것 같다. 요즘은 박물관의 유명한 소장품을 보기 위해 동창들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단체관람을 많이 한다고 한다.

### 한국복식의 멋과 아름다움 담은 담인복식미술관

지하1층 기증전시관은 기증받은 유물을 순차적으로 연 1회 새롭게 전시하는 공간이고, 담인복식미술관은 본교 생활환경대학 의류직물학과장숙환 교수가 어머니 담인 장부덕님의 유품 및 40년간 수집 기증한 유물을 전시하는 곳으로 조선시대 남녀 장신구, 의복, 목공소품 등으로 한국복식의 멋과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2층에는 현대미술전시관과 기획전시관이 있다. 현대미술전시관은 2006년 개관되었으며 전통과 현대의 맥을 잇고자 하는 이화여대 박물관의 의지가 깃든 곳이다. 기획전시관은 다양한 주제로 기획되는 특별전시가 연 2회 이루어지고, 전시기간에는 강연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그리고 박물관 1층 테라스에는 옹기갤러리가 있는데 아름다운 문양과 형태를 가진 옹기를



조경과 함께 옥외에 설치함으로 또 다른 전시공간 이자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개장, 기념아트샾 속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은 아트샵이다. 우리 박물관은 관람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박물관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점과 함께 한국대학박물관 최초로 아트샵을 개장했다. 박물관 소장품에서 모티프를 따온 도자기, 엽서, 우산, 장신구 및 생활소품 등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지인에게 선물할 때에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다른 데서는 찾지 못하는 희소성도 있고, 작품의 질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착한 가격이 맘에 든다.

### 10월 16일부터 2층 전시관서 특별기획전 열어

여성고등교육기관인 이화의 이념에 맞추어, 우리 박물관은 여성에 관한 주제전을 기획하기도 하



는데, 현재 상설전시관에서는 내년 7월까지 지속되는 ‘조선시대 여인의 삶’ 전이 전시 중이다. ‘조선시대 여인의 삶’은 조선시대 여인의 일생을 출생부터, 성장기, 혼인을 거쳐 중년, 노년, 죽음과 자식들의 상복까지 복식과 장신구를 통해 보여주고, 조선시대에 신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살아가는 각 계층의 여인의 삶의 모습 또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담인복식미술관에 전시되는 ‘조선시대 무관의 차림새’ 전은 17세기 군복과 평복에서부터 조선후기의 군복과 관복 차림새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층 전시관은 가을 특별기획전을 준비 중으로 볼 수 없어 서운했다. 2013년 10월 16일에 2개의 가을 특별기획전(“모방의 미학–한국미술 속의 모방과 창조” “현대미술, 원본에 도전하다”)을 개막예정이고 이와 연계하여 국제학술 심포지엄 “모방과 창조”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기간은 2013년 10월 16일 ~ 12월 31일 까지이며, 학술심포지엄은 10월 18일에 개최한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양 및 서양 각국의 모방작과 원작을 비교고찰해보는 자리로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모방의 미학에 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동창들 참여 기대

오진경 관장은 6년 동안 이대 박물관장으로 일해 오고 있다. 대학박물관은 또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전시는 물론 학술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과 소통하는 문화교육적 기능을 활성화시켜



야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최근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의 참여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고자 열린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특히 눈에 띠는 것은 “박물관인을 위한 문화예술 아카데미”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박물관인은 물론 박물관 교육 및 전시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운영하는데 7강으로 무료이며,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작한다.

요즈음은 박물관 문화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식 정도가 많이 높아졌다. 모교 내에 있는 훌륭한 박물관을 사랑하고 많이 이용하면 동문들의 역사 의식 및 지식욕구가 충족될 것 같다. 관람은 월요일~토요일 9:30~17:00이고 일요일, 공휴일, 매년 2월과 8월은 휴관이다.

글. 김경은(영문79, 이화동창면접위원)

# ‘청정수’ 같은 아내와 오늘처럼만 행복하기

## 이정무

경북고, 서울법대

전 건설교통부 장관, 제13대와 제15대 국회의원(대구 남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대한체육회 부회장, 한국JC 중앙회장 등

현재 한라대학교 총장, (사) 한국물포럼 총재,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아내인 구순모 동창은 불문과를 1967년에 졸업하였다.



내 아내는 내게 ‘청정수’ 같은 여자다.

46년 전 아내가 포항 앞바다의 청결한 백사장에 앉아 나를 맞았을 때 이미 나는 그것을 알았다. 내가 만든 태백(太白)클럽이라는 산악단체의 정기 선 후배 캠핑을 포항 앞바다에서 하고 있었던 1967년 여름, 후배의 누나였던 아내가 남동생의 친구들과 캠핑에 찾아온 것이 나와 ‘운명적 만남’이었다.

가끔씩 아내는 그 날의 ‘운명적 만남’을 추억하며 자신이 먼저 내게 반했노라고 하여 나를 웃게 한다.

2년의 열애 끝에 1969년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향후 진로에 대해 고심하던 때여서 결혼을 생각하는 자체가 무리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를 2년씩이나 기다려준 아내는 언제나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

“당신의 talent는 언제 어디서나 빛날 거예요.”

결국 나는 ‘법조계는 나의 길이 아니다’로 결론 짓고 직장생활을 하며 아내와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 후 2남 4녀를 둔 처갓집(아내는 셋째 딸로 처남들이 아직 장성하지 않았다)에서 사업(대구백화점)을 도와 달라는 장인어른의 제안이 있었다.

장인어른은 계속 독촉하였고 아내는 묵묵부답이었다. 신혼 6개월 만의 결심이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아내는 늘 나를 믿어주고 뒤에서 도울망정 절대 앞으로 나서지 않는다. 내 스스로 결정해야만 앞으로 돌진하는 내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내가 강하게 반대한 일이 있었다. 1988년 대구백화점 대표이사를 접고 정치를 하게 되었을 때다. 그러나 막상 내가 국회의원 길을 걸어갈 동안은 또 묵묵히 지역구민들을 만나면서 서로가



슬하에 2남 1녀를 둔 다복합 속에 왼쪽 뒤로부터 차남부부, 큰손녀, 장남부부, 큰손자, 손녀들과 함께.

부족한 역할을 해 주었다. 그 뿐인가. 국회의원에 낙마하여 짚어질 수밖에 없었던 정신적인 부채도 아내는 모두 감내하며 계속 나의 길을 가보라고 등 떠밀었던 터다. 지금 생각해봐도 많은 일들을 잘 침아주었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 준 아내다.

언젠가 아내는 내게 말했었다.

“당신이 저의 모난 성격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나는 45년간 나를 지켜 준 아내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소신껏 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 백년대계를 꿈꾸며 총장직을 맡았고 미래 자손들이 물려받을 대한민국, 세계 청정지역을 위해 (사)한국물포럼 총재직을 수행하며, 또 2015년 대구에서 열릴 세계물포럼 대회 준비를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지금도 언제나 아내는 출근하는 나에게 현관에 서 “당신은 정장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Have

a nice day!” 라며 나를 배웅한다.

아마도 아내는 이화여대에서 ‘남편 기 살리는 법’을 전공했을 것이다.

서로가 건강하게 깊이 이해하면서 노년을 준비 합시다. 더도 덜도 말고 오늘처럼만,

(위 글은 필자가 구술한 내용을 유영선 총동창회 흥보부장이 정리한 것이다..)



사위와 딸, 외손주들

#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그 깊으신 뜻

김은경(성약 04), 장진기 부부 선교사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고(故) 방효원 선교사님(가정)의 순직 소식을 가슴에 묻기도 전, 이번엔 저희의 언어 교육을 위해 힘써 주었던 현지인 ‘포’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교회를 생각하며 소천 후에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위해서 힘썼던 목사님의 소식을 접하면서,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그 깊으신 뜻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총선 결과 인민당(CPP)은 과반 의석의 확보로 표면적 승리를 쟁취하였지만, 지난 선거

결과를 놓고 비교해 볼 때, 실로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야당 당수 삼랑시는 결과적 승리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불법 선거에 대항하는 대규모 집회로 캄보디아는 지금 폭풍전야를 방불케 합니다.

현재 많이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걱정이 앞선 일부 청년들은 본인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정상적인 회복이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빠른 시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독교학교 설립을 위한 첫걸음 – 관계를 시작하다.

현재 초등학교 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용업 장로님의 도움으로 지역학교후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캄퐁참 주 교육청과 타운 내 담당자를 만나 지역의 학교현황과 후원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학교설립에 대한 내용은 나누진 못했지만, 그 시작을 알리는 관계를 트는 시점이라 생각하며 향후 기독교학교 설립에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교회사역 – 활동적 교회 세우기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시작한 찬양팀 사역을 보다 넓게 확대하기 위해 기타교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고자 하는 원생은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여 면저장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비가 마련되는 대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중에 시작하기에 위해서 동역자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여러 단기팀 방문으로 주님께 감사

하베스트(수영로교회) 의료선교팀 인근 선교사님의 의료선교팀 방문으로 원아들의 건강검진(치과검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치과진료가 무서웠던 ‘빤야’는 끝까지 입을 벌리지 않아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아들에게 청결한 생활습관을 가르치지만, 청개구리같은 몇 명의 원아들은 자신의 선택이 때론 아픔을 견뎌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헤브론 선교병원을 통해 예수대(간호학과)단기 팀과 의료선교팀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의료봉사를 통해 원과 지역 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지역사회로 더욱 큰 나눔의 시간이 되어 다시금 주님께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는 워싱턴성광교회 단기 팀 방문도 있었습니다. 도착 첫날부터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쉼 없이 수고합-

으로 봉사한 팀의흔적이 원의 곳곳에 남아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원내 환경미화를 위해 내·외부 폐인트작업과 전기·수도공사 등, 그간 필요를 채우지 못했던 곳의 채움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눔으로 그 사랑을 채우는 시간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채움의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 찬양 콘서트에 특별출연

캄퐁참 지역을 함께 섬기는 김성태 선교사님께서 지역 복음화 사역의 일환으로 500석 규모의 극장을 빌려 찬양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캄퐁참 전체에서 처음 계획된 대형 집회라는 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선교사님의 요청과 원생들의 특별한 섬김이 하나되어 Shining star Children House의 이름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캄보디아에 온지 6개월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사역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걸음 한걸음 첫발을 내딛는 어린아이와 같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가정되도록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대학교재(IFSF) 4권을 공부하게 됩니다. 언어공부에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교재의 주된 내용이 캄보디아 문화에 관한 내용으로 언어를 배우며, 동시에 그 문화를 습득하는 시간이 되어 캄보디아 문화의 이해를 통해 더욱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가정 되도록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 Ewhain을 아시나요?

이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화를 졸업한 모든 분을 기다리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 것 아세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에 ‘이화인’ Ewhain을 검색하면 사이트 주소가 뜨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물론 이화인닷넷 <http://www.ewhain.net> 으로 직접 들어 오셔도 됩니다.

지난 8월 말에 산뜻한 모습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한 번 방문해 주세요.

모교의 비전과 역사, 행사와 소식을 접할 뿐 아니라, 함께하는 이화인, 나누는 이화인으로 직접 이화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컨텐츠를 살펴보시며, 이화에 대한 사랑을 키우실 수 있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알수록 사랑하게 되는 것을 생활로 체험하고 계실 여러분에게 모교에 대해 깊이 알아 가실 수 있도록 준비된, 행복이 가득한 공간에 꼭 한번 찾아 와주세요. 재능 기부 프로젝트로 이화법조인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법률 상담을 통해 활발히 활동 중이고, 이화금융인회 ‘콩알한쪽’은 이화가족, 여성, 지역주민, 아동을 대상으로, 소통과 나눔의 큰 뜻을 실천하고 있답니다.

홈페이지를 둘러 보면, 여러분의 친정집으로 손색이 없이 발전해 가고 있는 이화에 대한 자부심도 커지고, 함께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키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127년 전, 한 여인의 특별 현금이 씨앗이 되어 시작된 이화가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로서 세계의 여성들을 품어 가려 함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은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적의 이화 역사를 이어 가고 있는 이화인 여러분!

‘이화인닷넷’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Ewha, where change begins.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화가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을 행복하게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 성시열(의학81, 총동창회 정보통신부장)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이화인 Ewhain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 이화

Global Hub for Women's Education

이화는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로써,  
인류와 사회, 우리 모두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여자대학 이화, 더 큰 지식과 혁신으로 인류의 공통선을 실현합니다.



비움을 통한 나눔  
나눔을 통한 섬김

이화인이 나누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 축 하 합 니 다



## 이배용(사학 69) 동창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취임

9월 17일 이대 13대 총장을 역임한 이배용 (사)코피온 총재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전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대 회장,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지낸 이 원장의 취임식은 10월 8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거행되었다.



## 이옥경(신방 72) 동창 여성가족재단 이사장 취임

여성 민우회 부회장, 여성부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한 이옥경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7월 10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비상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을 위한 정책, 사업 등을 개발하기 위해 2002년 출범하였다.



## 서현숙(의학 73) 동창 한국암학회 회장 취임

이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한 서현숙 동창이 6월에 열린 제 39차 한국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되었다. 서 동창은 유방암 방사선 치료 전문으로 국내 방사선 치료에 큰 업적을 쌓아왔다.



## 유영숙(화학 77) 동창 2013 여성 생명과학자 상 수상

전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유영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이 6월 26 일 모교 ECC에서 개최한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시상식에서 학술진흥상을 수상하였다.



## 이순남(의학 78) 동창 제 14대 이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8월 1일 이대 의대 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한 이순남 교수가 이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취임하였다. 8월 14일 취임식에서 이 원장은 '이화의료원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 정미현(기독, 대학원 88) 동창 세계적 신학상인 '마가 뷔리 상' 수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정미현 교수가 지난 6월 여성 신학부문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상인 '마가 뷔리 상'을 수상하였다. 정 동창은 금년 3월 학교 설립 128년 만에 첫 여성 교목이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로 연세대에 부임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8월 14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이순남 신임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유권 이대목동병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 29차 세계여의사대회가 개최되어 39개국에서 참석한 1300여명의 여의사들이 127년 이화 역사와 캠퍼스에 감탄하며 친사를 아끼지 않았다.

# 청각장애 뛰어넘고 이태리 명품회사 당당히 취업

## 김소정 (설예 2013년 8월 졸업)



지난 8월 30일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섬유예술 학과 학사모를 당당히 쓴 김소정동창은 청각장애 2급을 갖고 있음에도 이탈리아 명품브랜드 Bottega Beneta 회사의 VMD 부서에서 인턴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의 무한지지와 믿음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머니는 이화 선배이기도 하고 정말 낙천적이셔요. 학창시절에 제 성적이 떨어져도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절 믿어주셔서 자신감이 생겼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청각 장애 때문에 수업이 원활하지 못한 김동창에게 이화의 ‘원격지원시스템’의 도움은 더 할 수 없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였다. 원격 지원시스템은 강의실에서 화상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해 수업 내용을 한국재활복지센터의 속기사에게 전송하면 속기사가 그 내용을 그대로 김동창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장애학생을 위한 수업지원도우미는 이미 이화봉사센터에서 몇 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어서

선배님들도 지원을 받아왔어요. 원격지원시스템은 제가 2학년이 되어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했고 저도 수업을 좀 더 완벽하게 듣고 싶어서 서비스를 신청해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김동창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스승으로 장연순, 손정례 교수를 꼽았다.

“장 교수님은 언제나 파워풀하시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셔요. 몇 달 전에도 전로고민 때문에 만나 뵈었는데 굳이 말을 안해도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인생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손 교수님은 제가 자신 없어할 때 자신감을 많이 불어 넣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지요.”

교내외 장학금도 6번 이상 받았을 정도로 열심히,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온 김동창은 재학 중에 삼성전자 인턴으로 PC 마케팅 부서에서 2개월 동안 일한 경험이 있으며 금년 7월 초부터 Bottega beneta 브랜드 회사 VMD부서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VMD(Visual Merchandising: 매장의 인테리어 컨셉과 디스플레이 전략을 포함해 상품에 대한 총체적 시각화 표현을 담당하는 마케팅 활동 중 하나)는 섬유예술학과인 김동창의 전공과 관련

이 많다.

한가지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경험해보는 것이 목표라는 김동창에게 신체적 장애는 오히려 인생에 대한 기대를 더 키웠다고 한다.

“이런 경험은 저 뿐만은 아니겠지만 저도 새내기 때에 제 장애가 창피해서 비장애인 친구들을 만나면 장애를 숨기고 만난 적도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말꺼내기 어렵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자신의 장애에 대해 천천히 이해시켜주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라는 제약 때문에 안되겠지...’부터 생각지 말고 이것 저것 도전해보라고 조언하는 김동창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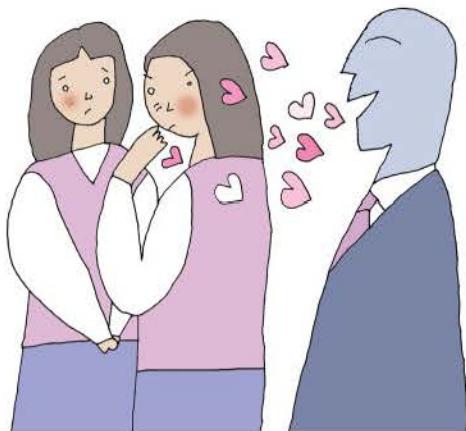
재학시절 이화의 동아리 활동을 하며 과 선배들 지원 받는 게 너무 좋았다는 김동창에게서 소중한 20대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아름다운 이화인의 모습이 보인다.

글. 박경희(신방90 이화동창편집위원)

#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법률상식 OX 퀴즈

천정아

(법학04, 법무법인다온 변호사)



## 직장 동료를 성희롱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답은 X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스킨쉽(터치)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성희롱의 수준을 넘어 추행이나 강간을 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 관련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0년 전의 성폭력 범죄자를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X – 근래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등이 개정되어 일부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친고죄도 모두 폐지되었습니다만, 개정된 법률이 과거의 모든 범죄에까지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 시점과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십여 년 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30년 전과 같이 아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주 오래 전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될 수 없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법상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규정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기에, 범죄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성인 피해자도 경제력과 상관없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 O –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여성인 경우에도 검사가 선정해 준 피해자 국선변호사(과거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라면 경제력 등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형사절차에만 관여하는 변호사이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종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 원스탑센터 등에서 연계해 주는 무료법률구조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로 우울증과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경우,  
무료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 O –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 무료로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임신이 되거나 성병에 감염된 경우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등과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해바라기센터, 원스탑센터 등에서 무료로 상담이나 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심리치료와 같은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동창회 소식

## 정기임원회

9월 4일 이화삼성문화관 8층 총동창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임원회에서는 일주일 후에 개최할 대바자 회의 철저한 준비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대바자회는 전년도에 연이어 열리게 되어 각 대학(원), 과, 지회 동창회 임원들의 봉사와 노고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9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후보 접수 보고 및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11월 25일에 개최할 ‘이화인의 밤’ 행사 일정에 대한 의견도 개진되었다.

## 제9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선정 위원회 구성 및 심사

9월 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11월 25일(월)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할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8명의 선정 위원들은 9월 27일 총동창회 소회의실에 모여 각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의 1차 심사를 하였으며 10월 중 실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 당연직 위원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장  
윤순희(교육 65) 총동창회 고문  
박경임(식영 73) 총동창회 문화부장  
양옥경(영문 82) 모교 대외협력처장  
김미현(국문 88) 모교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부처장)

#### 선출위원

박유나(도예 81) 총동창회 부회장  
유영선(신방 75) 총동창회 홍보부장  
이혜양(식영 79) 총동창회 지역부장

### 역대 수상자

- 1회 2005년 박진숙(심리 58) 부산매실보육원 원장
- 2회 2006년 김행자(불문 64) 광주 로렌시아의집 원장
- 3회 2007년 방숙자(정외 56) 글로벌어린이재단 이사장
- 4회 2008년 윤애리나(간호 59) 부산 자매정신요양원 원장
- 5회 2009년 박양미(제약 82) 아프리카 선교사
- 6회 2010년 강선희(법학 61) 서울중앙지방법원 자원봉사
- 7회 2011년 신경희(특교 84) 네팔선교사
- 8회 2012년 최재명(사회복지 66) 경산복지재단 이사장

# 선교부 소식

## 여름 단기 선교 학생 환송 예배



29차 단기 선교 학생 환송 예배가 6월 25일 이대 다  
락방전도 협회에서 1부 찬양, 기도, 양현혜 목사 말  
씀, 문신희(동양 83) 선교사의 ‘하나님 나라의 꿈  
들이 되라’는 격려, 조종남 총동창회장 격려사, 특  
송, 헌금으로 진행되었다.

양현혜 목사는 ‘지금 여기를’이라는 제목 아래  
“시간은 불가사의하며, 시간의 흐름은 누구도 막  
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비교  
하지 말며, 성취한 도달점을 생각하고 일을 할 때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태도를 갖자. 우리는 하루  
씩만 살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았고 실패할 일들도  
많지만 그 짐을 맡길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들도  
우리이므로 학생들도 이 축복과 선물을 누리고 살  
기 바란다”는 선교에 대한 인도를 전해주었다.

예배 후 총동창회 선교부에서 마련한 점심 식사를  
나누며 단기 선교를 떠나는 학생들은 2부 순서로  
선교부 선배, 선교사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선  
배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 화송 예배를 마쳤다.



# 대학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 간호대학

회장 / 김진향(간호 73)

### 한국 간호학계의 대모 고 이정애

#### 선생님 59주기 추모 예배

동창회는 매 년 5월 고(故) 이정애 선생님을 기리는 시간을 가진다.

. 이정애(1901~1954) 선생님은 한국인 최초의 전문 간호인으로 추앙받는 분으로서 이화학당 중등과에 입학하여 고등과에 진학하였을 때 3.1 운동이 일어나 동료들과 독립운동에 가담하였으며, 친구 옥바라지를 하며 그 가정을 돌보았다고 한다.

1925년 이화학당 대학과를 졸업 한 후 아펜셀러 교장과 김활란 선생님의 도움으로 간호학을 하와이 호놀룰루 Queen's 대학에서 수학(1928~31)하였다. 유학 시절 세브란스 행정가들의 요청을 받고 귀국하여 당시 남대문 부근에 있던 세브란스 병원

에서 이론과 실무를 갖춘 간호부원장으로서 간호 실무자, 교육자, 행정가로서 간호계 최고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하였다. 때문에 해방 이후 우리나라 간호계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선생님의 제자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던 때가 일제강점기였고, 적대국에서 유학한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선생님은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그 후 모교 기숙사 사감으로 학생들과 교직원의 후생을 담당하셨다.

1937년 7월 간호사 국제대회가 영국에서 개최되어 한국을 대표하여 참석하여 논문 발표한 것이 조선, 동아일보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1947년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서 간호행정을 연구하였고 대학과정에 간호교육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1953년 나이 텅개일 탄생 133주년 기념일에 한국 간호계에서는 최초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셨다.



지난 5월 8일, 가평 이화수목원에서 간호학부와 간호대학 동창회가 주최하고 교수, 재학생, 동창 등 28명이 참석하여 이정애 선생님의 59주기 추모 예배를 가지고 선생님의 업적을 선후배들이 함께 나누었다. 이 날 이정애 선생님의 생애와 간호 선구자로서 이화에 간호를 세우심을 되새기며, 이화 간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이화 간호인의 도전을 다짐하였다.

## 약학대학

회장/정준순(약학72)

### 정기 임원회에서 신입동창 선서식과 선물 전달

6월 18일 이대 진관 식당에서 정기임원회를 개최하여 25명(2013년 2월 졸업한 신입동창 3명 참석)이 참석하였다. 정준순 회장은 5월에 개최되었던 제2회 ‘이약인의 봄’ 행사를 보고하면서 동창회와

교수, 재학생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축제의 날이었음을 회고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문화부가 5월 31일 ‘동창의 날’ 행사의 합창 대회에서 약대합창단이 1등 수상의 영예를 가졌음을 보고하고 지역부는 ‘화합의 날’ 행사로 충주 동화약품 방문에 많은 동창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음을 보고하며 동창들께 감사함을 전했다.

사업부의 공연과 후원금을 전달한 정원요양원 방문 보고와 약사부의 동창회 소식지 원고 부탁에 이어 특별히 약대 건축추진위원회 보고가 있었는데 김순영 위원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동창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반드시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어서 신입동창 선서식 및 선물 전달이 있었고 오찬을 나누며 선후배 간의 정겨운 대화의 장을 열었다. 마침 교정에는 비가 내려 운치있는 교정을 바라보며 학창시절의 향수를 느끼기도 하였다.





가나다순으로 개재

## 건축학과

회장/ 강선혜 (98)

### 동창회 운영진 회의에서

#### ‘이화 건축인의 밤’ 개최 결정

8월 16일 동창회 운영진 회의를 본교 ECC 케세이호에서 과운영진과 실무진(강선혜, 차은아, 김마리, 장미현, 신승우, 박경록, 임선정, 김용선)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과창립 20주년 기념 동창회 ‘이화 건축인의 밤’을 10월 18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건축학과 창립 20주년 기념 동창회 추진을 위한 학번대표 모임도 결정하였다. 이에 8월 31일 11시 신공학관 B154에서 20주년 기념 동창회 ‘이화 건축인의 밤’ 추진을 위한 학번대표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과동창회 운영진과 실무진 등 94학번~08학번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축학과 20주년 기념 동창회 행사에 대한 이벤트와 진행 방향 등에 대한 홍보와 당일 행사내용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이화 건축인의 밤’ 행사는 10월 18일 오후 7시 11시에 홍대클럽 ‘제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경영학과

회장/ 손향아 (81)

### 동창회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는

#### ‘홈커밍데이’ 행사

6월 12일 이대 ECC 이삼봉홀에서 경영학과 ‘홈커밍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현직 교수, 동창, 재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로 졸업 25주년을 맞는 21기 동창들의 모교 방문을 축하해 주었다.



김성국 경영대 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하여 이건희, 홍부길, 박재홍 원로 교수들의 격려인사가 있었고, 21기 정은실 회장의 동창 소개와 학과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손향아 회장은 재학생들에게 동창회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시고 격려하였고 ‘올해의’ 자랑스러운 이화경영인상 ‘은 21기 오명희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사무부장) 동창이 수상하였다. 특히 올해의 홈커밍데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40여 명의 21기 동창들이 참석하여 학창시절 사진과 영상물을 감상하며 추억을 나누는 화기애애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1, 2기 선배로부터 11학번 신입생들까지 많은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 후배 간의 따뜻한 만남의 시간을 가진 이 날 동창회 발전과 동창들의 화합에 기여하는 홈커밍데이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은(4기), 박경옥(26기) 동창등이 참석하였으며 강정민(14기), MBC PD 동창의 찬조금 100만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국제사무학과

회장/ 임은식 (81)

#### 제36회 과 영어연극동아리

#### Cactus 정기공연 가져

8월 28일과 29일, 오후 3시와 7시에 제 36회 국제사무학과 영어연극동아리 Cactus의 정기공연 ‘Musical MIRACLE’ 이 생활관 소극장에서 있었다. 동창회에서는 28일 저녁 7시 공연을 관람하였다. 전지현 학과장, 최애경 교수를 비롯하여 이정

### 독어독문학과

회장/ 이정화 (74)

#### 과 창립 50주년 맞이 행사 진행 논의

6월 14일 베스트 웨스턴 강남호텔에서 격월제로 있는 간사모임을 갖고, 과 창립 50주년 행사 일정과 준비위원회 결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7월 1일 마리 석란에서 과 창립 5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행사 규모와 초빙 인사 범위, 회비 책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불어불문학과

회장/ 강숙희 (74)

## 정기 아미간사모임 가지고

### ‘올해의 이화인’ 축하

8월 21일 세븐스프링스 잠원점에서 정기 아미간사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특별히 아미 23기 장 영은 총무의 ‘올해의 이화인’ 선정을 동창들께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서경옥(2기), 윤인진(4기), 조행자(4기), 홍경표(5기), 김혜원(8기) 등 대선배들을 비롯하여, 3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장동창을 축하하며 축하에 대한 답례를 받는 등 화기애애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사학과

회장/ 한혜련 (75)

## 41회 정기총회에서 27대 신임회장 선출

6월 13일 강화도에서 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70여명의 동창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이해옥(74) 동창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사학위 취득 동창 문진 중정, 올해의 이화인 소개, 서기보고 및 회계보고, 신임 동창회회장 선출이 있었다. 사학과 동창회 27대 회장으로는 한혜련(75) 동창이 선출되어 축하를 받았다.

총회가 끝난 후에는 고려궁지, 강화도 성공회 성당, 용흥궁, 전등사 등지를 답사하면서 동창들 간에 화목하고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7월 9일 석란에서 이해옥 전 동창회장의 초대로 동창회 신구임원 모임을 가졌다.

신임 임원진인 부회장 강정설(78) · 최유리(84), 총무 백옥경(85), 회계 김시연(82), 서기 정선(83) 동창 등이 참석하여 업무 인수인계와 함께 동창회 활성화 및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 섬유예술과

회장/ 김옥광 (80)

### 섬유 악세서리 워크샵 및 이화 섬유 조형회 전시

6월 12일 김옥광 동창회장 자택에서 기대표 모임을 가지며 조경은 총무를 강사로 한 섬유악세서리 워크샵을 열었다. 강길주, 유명상, 이명희, 이은실, 조근미, 배은미, 박정희, 이유미, 이명순, 김옥광, 장수연, 조경은, 전서윤, 김충선 등 많은 동창들이 참석한 이 날 김옥광 동창회장의 동창회 행사 보고 후 섬유악세서리에 대한 강의 및 실연 등 워크샵을 마친 후 오찬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가을에 다시 한 번 열릴 예정이며 내년에도 3차 4차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화섬유조형회는 조형예술대 섬유예술과 동창들을 중심으로 1986년에 창립되어 전시를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8월 8일부터 8월 16일

까지 강남구 논현동 구하갤러리에서 초대전으로 열렸다. 오픈 일에 엄정윤 원로교수(섬유예술과 1대 동창회장)를 비롯한 역대 동창회장들(이효범, 이명님, 김혜순, 오복환, 장영란)과 현 김옥광 동창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초대작가는 장영란, 봉지희, 전경화동창 외 15명이다.

## 조소과

회장/ 심인자 (74)

### 친목과 단합 위한 야유회에서

### 동창회 발전 의견 나눠

8월 26일 동창회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우애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심인자 회장을 비롯하여 21명의 동창들이 참여하였으며, 대관령 양떼목장과 박신정(85) 동창이 운영하는 강릉 정동진 소재의 하슬



라 아트월드를 방문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바다와 미술관, 조각공원을 관람하고 정겨운 식사를 함께 하는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1971년 졸업생부터 2002년 졸업생에 이르기 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발전적인 동창회 행보를 위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도 되었다.

### 초등교육과

회장/ 박정서 (81)

#### 김혜정 동창 최연소 장학사로 이름 올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 걸쳐 시행된 교육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2000년에 졸업한 김혜정 동창이 합격통지서를 받고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최연소 장학사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한편 지난해에 합격한 라향숙(89) 장학사는 현재 강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교원능력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두 동창 장학사는 앞으로 후배들의 든든한 베풀 목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5월 25일 이대부속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되었던 정기총회를 통해 제12대 동창회의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6월 1일자로 시작된 새로운 임원들은 회장 박정서, 부회장 김광숙, 총무 구순옥 동창으로 전임 회장단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 뜻

을 이어받아 회원들의 친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또한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및 모교 발전기금 마련에도 힘껏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컴퓨터공학과

회장/ 임미숙 (86)

#### 9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한 근조기 제작

동창회 부회장 송희경 동창(87, KT 상무)이 지난 5월 자신의 모친상에 보내준 동창들의 따뜻한 위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동창들의 근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조기 제작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과동창



회에 기부했다.

이번 송동창의 기부 실천은 나눔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만들어 가는 동창회의 나눔 릴레이 정신을 몸소 보여준 것으로 송동창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곳에, 균조기를 통해서 동창들의 위로와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면 기쁜 일이며, 동창회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든든한 울타리임을 동창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에 제작된 균조기는 9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사용을 위해서는 동창 혹은 배우자 직계존속 부음 시 동창회로 연락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과동창회 소식지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 화학과

회장/ 한소엽 (80)

### 제 17대 녹화회의 신임 운영진 구성하고

#### 활동 시작

동창회 녹화회의 17대 운영진이 새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운영할 17대 녹화회 운영 임원진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모교 화학과 한소엽(80) 교수를 비롯하여 황복기(83) 부회장, 전길자(76) 신해영(78) 감사, 유미경(84) 총무, 김호정(92) 선교부장, 장혜련(92) 사업부장, 오훈정(92) 회우부장, 박희정(01) 회계, 김하영(09) 서기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6월 25일 16대, 17대 운영진이 함께 모여 신구회장 단상견례, 7월 15일 17대 운영임원진 상견례를 시작으로 17대 운영진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7월 15일 모임을 통하여 17대 녹화회의 2013년 운영 목표 및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다졌다.

이어 17대 운영진은 총동창회 주관 바자회 운영을 위한 실무 모임을 8월 22일, 서울에서 가졌다. 녹화회는 9월 11일 총동창회 주관 대바자회 수익금을 녹화회 사업비를 제외한 전액을 모교 동창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 국내 해외 지회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 남가주지회

회장/ 김정순 (간호 75)

#### 이화 챔버콰이어' 환영 모임 및 여름학교

#### 참가생 장학금 지급

7월 22일 신원 식당에서 동창 15명과 합창단원 25명이 참석하여 남가주를 방문한 모교 '이화 챔버콰이어' 환영 모임을 가졌다. 박신화 교수의 지휘로 재학생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이화 챔버콰이어'는 몬타나주에서 열린 국제합창페스티벌에 참여한 후, 순회공연 중에 LA를 방문했으며 환영회를 하루 앞선 7월 21일에는 '선한목자 장로교회'에서 공연한 바 있다.

한편 6월 19일에는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지난 4월 개최된 발레 <메시아> 초청공연에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이대 여름학교에 참가할 장학생으로, 히스페닉 상공회의소의 추천으로 선정

한 Sonia Melendrez(C.S.U.L.B., Psychology 전공), Janet Linares(C.S.U.L.B., Biology 전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장학위원 등 5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8월 5일에는 히스페닉 상공회의소 소장실에서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장학생과 동창회 임원 만났다. 장학생들은 동창회의 도움으로 귀한 경험을 하게 되어 앞으로의 삶에 큰 도전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화인들의 사랑에 거듭 감사를 표하며 체험담과 감사의 글을 동창회에 제출했다.

8월 10일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연세대 전미주동창회에 박화자 이사장, 김정순 회장, 장경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세대학 정갑영 총장 및 고려대학 임원들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여러 대학 동창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거론되었다.



## 뉴욕지회

회장/ 박문순 (사학 66)

### 정기, 초대모임 등을 통해 우정 나누며

#### 장학금 후원

5월 31일 이화국제재단 부이사장인 장화인(교심 69)동창이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 현정은 현대 그룹 회장과 더불어 모교에서 시상한 '올해의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을 수상하였다. 장 동창은 뉴저지 AWCA와 한인YWCA 등에서 30여 년간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기독교 여성운동에 헌신하여 왔다. 6월 15일에는 Great Neck 소재 박영숙(경영 86) 동창 자택에서 정기 모임을 대신한 BBQ 파티가 있었다. 잘 차려진 음식과 함께 푸르른 자연 속에서 40명이 넘는 이화인, 이화사위가 모여 스스럼없는 대화와 선후배간의 정을 나눈 더 없이 멋진 시간이었다.

8월 3일 롱아일랜드의 골프클럽 하우스에서 원로 선배인 이향원(51 의학) 박사의 초대로전 회장을 비롯하여 동창회 임원들이 오찬을 함께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다. 또한 8월 17일에는 모교 유아교육과 여름학기 프로그램 이수를 위하여 유아교육과 이기숙 교수 및 10명의 학생들이 뉴욕을 방문하여 캠프일정을 마치고 뉴욕동창회에서 마련한 디너 리셉션을 가졌다.

한편 뉴욕지회 2013 이화 장학금 수혜자로 뉴저지 Rutgers 대학의 김연찬 재학생과 Princeton 대학의 정나리 재학생을 선정하여 각 2,000달리를 지급하였다. 또한 이화여대 국제학과를 졸업(07)하고 Teachers College, Columbia 대학에서 박사 학위 중인 조민경 동창을 선정하여 장학금 3,000 달리를 수여하였다. 조 동창은 공부를 마친 후 underprivileged community에서 일할 예정이다.





## 독일- 오스트리아지회

회장/ 이순애 (체육 80)

### 이화라는 이름 하에 독일-오스트리아 지회

#### 정기 동창회 가져

이화 독일-오스트리아 지회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이화 동창들의 연합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방대한 지역을 아우르고 있어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비엔나, 하이델부르크, 자브뤼켄, 마인츠, 하노버, 쾰른, 인스부르크 및 뮌헨, 잘츠부르크의 각 도시별로 월별 또는 계절별 모임을 진행하면서 일년에 한번씩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번갈아가며 연간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2011년 인스부르크에서 첫 독일-오스트리아 지회 정기 모임을 가진 후 2012년은 함부르크에서 그리

고 2013년은 모짜르트의 도시 잘츠부르크에서 정기모임을 갖게 되었다. 뉴스에서 다룬 것과 같이 몇십년 만의 홍수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잘츠부르크 인근까지 영향을 미쳐, 정기 모임을 앞두고 몇몇 도로가 아직 복구되지 않아서, 차편으로 이동하려고 했던 동창들이 오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6월 15일 예정대로 이화-독일-오스트리아 동창회가 무사히 치러졌다. 함부르크에서 김군희 동창(영문 70),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양명숙 독일-오스트리아 동창회 부지회장(국제사무 85), 이승진 동창(영어교육 84), 그리고 잘츠부르크의 김정순 동창(성악 84)과 인스부르크에서 이순애 독일-오스트리아 동창회 지회장(체육 80)과 권채란 동창(영문 00)이 참석하였다. 6월 14일에 정식 일정 하루 전부터 잘츠부르크 시

내 관광으로 일정을 시작하여, 6월 15일에는 잘쓰부르크 인근의 아름다운 잘쓰 캄퍼굿 투어를 함께 하였고 볼프강 호수를 거쳐서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할슈타트 지역을 방문하고 저녁에 다시 잘쓰부르크로 돌아와 월드 오브 아시아라는 레스토랑에서 식사와 함께 회의를 하며 동창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방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동창회인 만큼 어떻게 더 지역 모임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내년 정기 모임은 독일에서 하는 것으로 일정과 장소에 대한 제안도 받으며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서로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로, 차로 이동하여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로 가득한, 먼 타국에서도 이화라는 이름 하에 서로 모이고 정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정기모임이 되고 있다.

### 몬트리올지회

회장/ 이채화 (무용 76)

#### 지역사회 위해 아동병원에 후원금 기부 결정

지난 5월 30일 동창의 날을 맞아 Casa Grecque에서 동창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밴쿠버로 이주한 김춘희(불문 61) 동창과 신입회원인 문정아(불어교육 92) 동창이 참석하여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였다. 김춘희 동창은 올해 밴

쿠버 한인 문인협회에 신인 수필가로 등단하여 활동 중인데 이날 모임에서 수필 낭독을 하여 동창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화동문’으로 4행시를 만들며 이화의 추억을 되살렸고 마지막에 이화사위들도 참석하여 흐뭇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저희에서는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몬트리올 Children’s Hospital에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 보스턴지회

회장/ 김희선 (법학 77)

#### 조수현 전 회장 환송회 및 10월 총회 참석 독려

6월 7일 조수현(수학 76) 전 회장 자택에서 조지아 주로 이사하는 조 전 회장 환송회가 열렸다. 참석한 동창 모두 섭섭해 하며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추억



하였는데 특별히 작년에 백수연을 지낸 신좌경 원로 동창도 참석하여 더욱 뜻깊었다. 원로 선배의 강건한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참석 동창들은 부지런하고 적극적 사고방식과 믿음생활이 장수하는 비결임을 다시한번 깨닫기도 하였다.

7월 5일 조미하(화학 81) 동창 자택에서 모임을 가지고 금년도 북미주지회연합회 워싱턴 디씨 총회에 대한 의견과 타랜트 쇼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많은 동창들의 참석을 권유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날 특별히 김경애(의학 70) 국제재단 이사장의 새에 관한 지식 전달로 참석 동창들이 새삼 새들에게로 눈을 돌리고 또한 창조주를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8월 23일 Oga's Japanese Cuisine에서 열린 모임에서 일 년에 100 달러씩 5번 기금을 내어 이화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고 모교를 돋는 일에도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10월에 열리는 워싱턴 디씨 2013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홍보하고 새 이사장으로 이해원(약학 70) 동창을 추대하였다. 이 날 참석 동창들은 특히 김지수(약학 49) 원로 동창의 참석에 모두 기뻐했으며 아직도 능숙하게 운전하는 열정을 칭송하기도 하였다.

### 북경지회

회장/ 박영선 (관현 82)

### 연례 동창회 개최

5월 8일 재중 지회 동창회가 북경 샤오원루에 소재한 100년 전통의 프렌치 레스토랑 Brasserie Flo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북경대, 청화대 및 인민



대 등 중국 유수의 대학원에 재학중인 유학생들도 함께 참석하여 선, 후배간의 정을 돋독히 하였다. 프랑스 정찬과 함께 한 이번 동창회에서는 바자회 등 여러 활동으로 확보된 저희 기금의 사용 현황 및 북경의 불우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에 쓰인 기부 활동 등이 보고되었으며, 신임 회장단으로 회장 박영선(관현 82), 부회장 손도희(교육 87), 총무 김정연(94, 영문학), 회계 김지영(88, 교육심리)이 선출되었다. 북경지회에서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 월례 동창회, 매년 5월 총동창회와 가을 동창 골프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매회 동창회마다 20여명의 동창들이 꾸준하게 모여 동창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 시드니지회

회장/ 황혜자 (교공 76)

### 정기 동창회에서 흥미있고 유익한 강의들 풍성

8월 24일 제 114회 정기 동창회가 이전희(가정관리 72) 동창 자택에서 열렸다. 22명의 선후배가 모여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한국에서 이 날 아침에 도착한 김숙향(사회 83) 이대 북한학과 교수의 북한 여성에 관한 강의를 모두 흥미있게 들었다.

또한 발 전문의(podiatrist)인 정혜원(사학 86) 동창의 '발건강 관리'에 관한 유익한 특강을 가진 후 9월 말 캔버라 툴립 축제 참석 여부에 관해 논의하였



다. 앞으로의 모임은 더 많은 동창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애틀지회

회장/ 김채순 (교육 71)

### 정기모임으로 가족동반 피크닉과 바자회 열어

따뜻한 햇볕과 감미로운 바람, 수려한 자연 풍광에 매료되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시애틀의 아름다운 여름동안 인근에 거주하는 약 200명의 동창들이 매월 한차례씩 행사를 하였다.

지난 7월에는 중부 워싱턴 Yakima에서 하윤애 부회장 초청으로 체리를 따러 갔고, 8월에는 시애틀의 Seward Park에서 모여 피크닉을 즐겼다. 야유



회에는 50 여 명이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9월 추석 즈음에는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 바자회를 계획하여 시행하였다.

### 시카고지회

회장/ 송복진 (영문 73)

### 여름 정기 모임과 가을 임원 이사회

6월 12일 송복진 회장 자택의 정원에서 별미의 점심식사를 한 후에 선후배들이 동창회 발전을 위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구광자 동창이 6월 최양혜(과교 78) 동창 모친상 장례에 교기를 갖고 참석하여 조의를 표했으며 8월 10일 홍명희 이사장 초청으로 임원들과 고문들이 함께 만찬을 가진 후 동



창회 일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8월 24일에는 문화회관에서 가을 정기 임원이사회가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미혜 동창의 기도, 점심식사, 음악퀴즈의 1부 친교시간을 가진 후 2부에서 회계보고, 사업보고에 이어 안건을 토의했다.

### 아틀란타지회

회장/ 김정희 (약학 79)

### 임시 총회에서 회칙 개정 및 새 이사회 구성

매월 2째 일요일 모임을 갖고 있는 회에서는 모임마다 '축이회' 떡을 마련하여 생일 축하 및 신입 회원 환영을 하고 있다. 6월 모임에서는 지회를 방문



한 화가 정호문 동창의 개인전 화보 소개와 조용옥  
동창의 시집 발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7월 14일 모임은 임시총회로 이사회에서 개정한  
회칙을 통과 시켰고, 4월에 발족한 이사회에서 이  
사님들을 중원하여 총 20명의 이사들로 이사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위촉하였다.

2013-2014년도 이사로 성정순, 김영예, 정소영,  
김혜경, 조성숙, 김순희, 김정숙, 장석란, 김복희,  
정문자, 김혜선, 박영애, 이종연, 정제니, 김원숙,  
김정자, 이원옥, 어영희, 조윤정, 김난경 동창등이  
앞으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하  
였다.

8월 17일 매년 '한미장학재단남부지부'를 통해 수  
여하는 "이화여대동문회장학금" 1000달러를 장보

람(University of Georgia) 학생에게 수여하였고  
그동안 방학했던 합창반이 다시 모여 연말파티와 1  
월 행사를 위한 연습을 다시 시작하였다. 합창반은  
송미애 지휘자, 윤미영 반주자 외 총 20명으로 구  
성되어 격주로 모여 연습하고 있다.

### 워싱턴디씨지회

회장/ 오혜경 (영문 72)

### 이화합창단(The Ewha Chorus) 창설하여 연주회 가져

10월에 개최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  
주지회연합회 2013년 총회를 바라보면서, 워싱تون  
디씨지회는 이정희(종음 89) 음악부장과 구성희  
(성악 86) 지휘자의 활약에 힘입어 5월 9일 '이화



합창단(The Ewha Chorus)'을 조직하였다. 20여명으로 시작한 이화합창단은 현재 급성장하여 40명 이상의 대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수도에서 이화의 자랑이요 협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북미주지회연합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화합창단은 지난 6월 8일 Washington DC 근교인 Bethesda, Maryland에 있는 Bradley Hills Presbyterian Church에서 열린 The Taste of Asia Fundraising Dinner에 20여명의 대원들이 참여하여 청중에게 대단한 감명을 주었다. 음악으로 이화대학의 궁지를 보인 연주는 이화의 아름다움을 미국 수도에서 빛나게 하였다.

8월 17일엔 전직 KBS 아나운서 출신인 김정현(정 외 59)동창 부군으로 바이올린계의 대부로 불리는

음악인 고 안용구 선생의 장례식이 있었다. 강동석, 김영욱, 정경화 세계적인 바이올리ニ스트를 길러낸 것으로 유명한 안 선생은 특히 이화합창단의 자택으로의 초대를 며칠 앞두고 운명을 달리하여 저희 이화인들에게 더욱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 필라델피아지회

회장/ 이경희 (무용 87)

### 좋은 강의와 맛있는 요리가 함께한 6월 모임

한 달에 한 번 첫째주 월요일에 모임을 가지고 있는 저희에서는 각각 다른 주제의 세미나와 친교로 즐거운 모임을 하고 있다. 전영애 전 회장의 초대로 부부 동반으로 모인 이번 6월 모임에서는 요리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전 동창의 부군 전희근 박사의 강의와 더불어 맛있는 요리까지 맛볼 수 있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모교소식

###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유튜브 에듀 '이화여자대학교 브랜드사이트' 등 통해 생중계

8월 30일 대강당에서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여 1,854명(학사 932명, 석사 827명, 박사 95명 등 총 1,854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모교 김선욱 총장은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오늘 수여받는 학위는 여러분이 하나의 성장과정을 무사히 넘어 스스로 어떤 문제를 받아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가 되었음을 보증하는 증명' 이라며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많은 기회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자녀의 힘겨운 학업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믿고 지지해준 학부모와 제자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 정성으로 지도하고 격려한 교수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총장은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졸업생들에게 세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첫째 10년 동안 매일 3시간씩 투자할 때에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1만 시간 법칙'을 예로 '끈기와 뚜심을 가지고 자기가 시작한 일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책임 있는 전문인이 되기'를 바라고 둘째 '외부의 평가 그리고 비판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현재의 작은 실수나 실패에 민감하게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존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셋

째 '인생의 긴 레이스에서 하나의 지표, 하나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정의로움'을 잊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 이화의 진선미 정신 '임을 강조하였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최우수 졸업생 조민수(경제학전공 · 10학번)씨, 만 21세로 졸업하는 최연소 졸업생 박정민(환경공학전공 · 10학번)씨, 장애를 딛고 학사모를 쓴 김소정(섬유예술전공 · 08학번)씨 와 함께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총 10명의 외국 학생들이 학부 졸업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개편된 홈페이지의 이화라운지 및 유튜브 에듀 '이화여자대학교 브랜드사이트'를 통해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졸업생 및 이화 가족들에게 생중계됐다.

### 메이드인 이화, 글로벌 여성 리더 배출 'EGEP' 및 이화-KOICA 국제학 석사과정 수료식 개최

아시아-아프리카지역 비정부기구 여성리더 교육 프로그램인 '제 4기 EGEП(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가 7월 16일 수료식을 갖고 2주간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수료식에는 김선욱 총장, 최진호 부총장, 장필화 아시아여성학센터소장을 비롯한 교내 주요 보직자와 파키스탄 샤우캣 알리 무카담(Shaukat Ali Mukadam) 대사, 라오스 대사관 오타마 시티퐁



(Outtama Sithiphong) 2등 서기관 등이 참석해 22명의 EGEP 수료생을 축하했다. 김선욱 총장은 축사를 통해 차세대 여성 리더가 될 EGEP 4기 수료생들에게 “이화가 평등하고 더 나은 지구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의 도전과 노력, 연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2일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2012 이화-코이카(Ewha-KOICA) 국제학 석사학위 프로그램 수료식’을 열어 6기 수료생 28명을 배출했다. ‘이화-코이카 국제학 석사과정’은 본교 국제대학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개발도 상국의 여성 공무원, 연구원, 교육기관 관계자 등을 전액 무상으로 교육하는 4학기 석사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에서 가나·나이지리아·이라크·몽골·온두라스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21개국에서 온 28명이 지난해 2월부터 16개월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 북유럽권 대학 및 정부기관과 교류협력 모색

### 학생·교수 교류 및 연구 협력 강화 논의 진행

김선욱 총장은 6월 20일부터 열흘간 독일 및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를 방문, 한독포럼 참가 및 지역 대학들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대학 및 주요 행정기관들과 학생·교수 교류 뿐만 아니라 연구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독일 콘스탄츠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총장은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이사장으로서 6월 20일부터 양일간 한독 수교 130주년을 맞아 독일 고슬라에서 열린 ‘제12차 한독포럼’에 한국 대표 단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다. 6월 24일부터는 스웨덴 지역 협력 확대에 나섰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콘스트파크 대학교(Konstfack University)를 방문, 마리아 란츠(Maria Lantz) 총장과 만나 본교 조형예술대학의 동문 네트워크와 학술역량에



대학 소개하고,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스웨덴 중서부 옵살라에 위치한 옵살라대학(Uppsala University)를 방문, 에바 오케손(Eva Akesson) 총장과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고, 향후 5년간 학생·교수·연구 교류(연간 교류 학생 2명)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26일에는 소피아헤멧대학(Sophiahemmet University College)을 방문, 모교 간호학부의 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2012년도 QS 랭킹 71위의 루드 대학교를 방문해 공과대학 및 여성학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이화발전위한자문·심의기구  
대학평의원회출범**  
**제1기 공식 출범하고 대학평의원 위촉식 가져**  
모교는 대학평의원회 제1기를 공식적으로 출범하

고, 지난 9월 24일 아령당에서 대학평의원 위촉식을 가졌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과 동문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학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문 심의 기구로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마련됐다.

1기 위원으로는 김성진 교수(화학·나노과학전공), 박동숙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 정덕애 교수(영어영문학전공), 최경희 교수(과학교육과), 김기현 노동조합위원장, 이현혜 직원(총무처), 봉우리 총학생회장, 조종남 총동창회회장, 박유나 총동창회부회장, 신영수 교수(건축공학전공), 채문경 사단법인 텁스 이사장 등 총 11명이 위촉됐다.

9월초부터 약 한달 간 평의원 선출 및 위촉 절차를 진행한 모교는 평의원 중 운영 규정이 정한 직원대표 노동조합위원장과 학생대표 총학생회장,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동창 2명 및 총장이 선임하는 대학 발전 부문 의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표는 선출과정을 거쳐 선발됐다.

이 날 위촉식은 11명의 평의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첫 대학평의원회를 이끌어나갈 평의원들도 평의원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각 구성원의 대표로서 이화발전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대학 평의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내년 9월까지 정기회 및 임시회를 통해 한 자리에 모여 대학의 발전계획 및 교육 등 대학 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 혹은 자문함으로써 학교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위촉식 이후 개최된 대학 평의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의장으로 정덕애 교수, 부의장으로 신영수 교수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 기관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덕애 교수, 조종남 총동창회회장, 채문경 이사장 등 3명이 선출되었다.

### 서울 첫 레지던셜 칼리지 ‘이화 RC’ 시범운영

#### RC 전용 기숙사 완공되는 2015년까지 ‘한우리집’에서 운영

‘이화 RC’가 첫 발을 내딛었다. 본교는 2학기부터 서울시내 대학 캠퍼스 최초로 도입되는 레지던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인 ‘이화 RC’의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201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올해 2학기부터 단계별 사업에 착수한 이화 RC는 1단계로 1학년 신입생 147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RC 마스터 1 명(국제학과 남영숙 교수)과 2~4학년 재학생, RC

조교 10명이 함께하는 형태로 RC 전용 기숙사가 완공되는 2015년까지 현재 기숙사인 ‘한우리집’에서 운영된다. 2014년에는 학기당 300명씩, 연간 600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2단계 시범 운영하며, 2015년 신입생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화 RC는 신입생들이 학교 기숙사에서 6개월씩 생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886년 한국 최초의 기숙학교였던 이화학당에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공부했던 것처럼 이화 RC는 학습·생활 공동체로서 교육과 생활의 경계를 없애고 미래 글로벌 여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양질의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과 프로그램으로는 ‘나눔리더십’과 ‘커먼리딩세미나’가 운영되고,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라이트업(Light-Up)’이라는 걷기 프로그램이 있다. 걸을수록 다리가 불편한 장애 아동의 의족과 휠체어 마련을 위한 기부금이 쌓이는 ‘라이트 업’은 9월 7일 기숙사 인근 등산로에서 처음 진행됐다. 이밖에도 토크쇼 형태의 특강인 ‘이화 RC 톡톡톡(Talk! Talk! Talk!)’과 ‘문화산책’이 진행되며, 생일파티, 모둠 구성원 아침식사, 운동회, 모둠 발표회, 바자회 등의 단체 활동은 물론 목소리 기부, 도시락 기부, 미혼모 교육 지원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과 교내 외국인 학생과 함께 명절 보내기 등도 선택 참여 활동으로 운영된다.

# 동창소식

졸업 연도순 게재

## 최명숙 (정외 57)

제 13대 이대 총동창회장이었으며 모나미 송삼석 회장의 부인인 최 동창이 2009년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손녀 송미영(경제 08) 동창을 기리기 위한 '송미영 장학금' 을 2010년 1억 원 기부에 이어 지난 7월 5천 만 원을 추가 기부하였다.

## 문희 (약학 59)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인 문 동창이 6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마약퇴치로 안전한 사회만들기' 라는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제2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마약류퇴치 각 분야에 공로가 많은 42명이 정부포상이, 11명에게 마그마상이, 45명에게 마약퇴치공모전상이 수여되었다.

## 이영강 (국문 66)

미주에서 소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 동창(미국명 김영강)이 2013년 제 15회 해외문화상 소설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돈.돈.돈”으로 조윤호 심사위원은 “문장의 배열과 공간 처리가 뛰어나며 무엇보다도 소설가의 혜안으로 잘못된 세상을 고발하고 재단하는 결말이 이채롭다.”고 평했다.

이 동창은 “SATⅡ 교사 지침서” 등 교재 편찬과 교사연수에도 주력했다. 저서에는 재미작가 5인 동인집 “참 좋다”와 소설집 “가시꽃 향기”가 있다.

## 곽연 (서양 67)

화가인 곽 동창이 레스빠스 71 갤러리에서 8월 14일 ~20일까지 '새로운 생명전' 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 김경자 (약학 68)

그동안 23회의 개인전을 열어온 김경자 동창이 7월 13일~ 16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김경자 개인전 '을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 박영신 (영문 71)

미주에서 도예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박 동창(미국명 김영신)이 미국플러톤 / 한국용인분청도자기 교류전 시회를 준비하여 6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플러톤 수목원에서 30명 작가의 100여 점 작품을 함께 전시했다. 한국에서의 전시회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 정태경 (사회복지 75)

일본에서 요리연구가로 활동 중인 정 동창이 일본의 지진으로 밀반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한국의 밀반찬을 더하여 일본인들의 식생활에도 움을 주기 위해 8월에 '지지미100' 을 출판하였다.

## 홍선희 (신방 75)

기자로 활동하였던 홍 동창이 제6회 서울문화의 밤 준비위원장으로 취임하여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서울문화의 밤 축제기간동안 평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시설을 들러볼 수 있는 시설 개방, 문화탐방 프로그램, 뮤직 페스티벌, 서울골목 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 신연숙 (신방 76)

크라운-해태제과 상무인 신 동창이 2013 서울아리랑 페스티벌 집행위원장 맡았다. 신 동창은 우리 민족의 살아있는 문화콘텐츠인 '아리랑' 을 중심으로 서울시민, 세계인과 소통하는 문화의 장으로 2013 서울아

## 동    창    소    식

리랑페스티벌을 열고 참여와 소통, 나눔의 사회가치를 실현하고 확산시켜 새로운 문화한류를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임정아 (가정 77)

재미수필문학가협회 이사장인 임 동창(미국명 이정아)이 2012년 제 5회 조경희문학상 해외문학상을 수상했다. 1985년에도 미주한국일보 여성칼럼 “세상사는 이야기” 미주중앙일보 칼럼 “이 아침에” 등을 집필했고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해외한국수필문학상, 미주펜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수필집, “낯선 숲을 지나며”, “선물”, “자카란다 꽃잎이 날리는 날”이 있다.

### 김숙희 (서양 78)

화가인 김 동창이 ‘꽃이 있는 풍경’으로 라마르 갤러리에서 8월14일부터 20일까지 개인전을 가졌다.

### 김영란 (조소 79)

AHAF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전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었다.

### 이선희 (조소 81)

명동 평화화랑에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개인전을 가졌다.

### 최지숙 (무용 83)

### 이애덕 (무용 88)

시카고 한국무용단 예술감독인 이애덕 동창(무용 88)은 최지숙(무용 83)동창과 함께 8월 24일 Skokie Art Performing Center(864석)에서 제 3회 시카고 한국

무용단 정기공연을 개최하였다. 이 동창은 계속해서 한국춤을 미국사회에 전파할 계획이며 특히 2세들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오는 9월 21일 무용단-youth 단원모집을 위한 오디션을 가졌다.

### 남연숙 (도예 86)

도예가인 남 동창이 7월 5일부터 21일까지 캄투먼에 위치한 프라자(듀티 후리)에서 전시회를 열었으며, 필리핀 제 115회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에서도 전시회를 가졌다.

### 장진이 (생명과학 90)

7월부터 필리핀 마닐라 소재 국립 EARIST 대학 Special Academic Program Fine Arts과의 겸임(의래)교수로 임명되었다.

### 최윤정 (경영 95)

7월 3일 철도공단 최초로 여성인 최윤정 동창이 기획 예산처 재무전략부장으로 승진하였다. 1996년 6급으로 철도시설공단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일해왔으며 이번 부장 승진은 ‘전 직위 공모’ 과정에서 이뤄진 발탁 인사로 철도공단의 여성 간부 발탁은 2004년 공단 창립 이래 첫 사례이다.

### 이희경 (조소 96),

### 박은선, 오수연, 이지향 (조소 98),

### 강선구, 안경하, 조수연\ (조소 99),

### 차경화 (조소 00)

조각그룹 비 ‘조각가의 배양실’이라는 주제로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시작에서 그룹전을 열었다.

### **오수연 (조소 98)**

오수연 동창이 7월 16일부터~9월 16일까지 홍은동 LabDotlineTV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 **환경임 (행정 98)**

7월 25일 행정고시 47회로 공직에 입문한 환경임 동창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중심인 기획재정부 인력 배치를 총괄하는 인사 담당 사무관으로 영전하였다. 이번 인사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절유처인 인사과 주무사무관에 여성이 최초로 임명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황동창은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예산실,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등을 거쳐 인사과에 투입된 것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 의견 수렴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은정 (환경공학 99)**

이은정(환경공학 99)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스탠퍼드 대학 박사 과정을 미국 정부 장학생(연 7만불)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동창이 이번에 미국 환경공학부의 최고의 저널지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에 논문이 통과됐다. 논문 제목은 'Assessing the Scale of Resource Recovery for Centralized and Satellite Wastewater Treatment' 이다.

### **장유정 (조소 02)**

장유정 동창이 6월 10일~15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VOLTA SHOW 9(전시 부스/갤러리 스케이프)에 2인전 LIVED SPACE로 참여하여 다수의 설치작업을 선보였다.

### **김지희 (동양 07)**

동양적 팝아트를 추구하는 한국화가 김지희 동창이 7월 4일~15일까지 서울 청작화랑에서 '가상의 위장(Virtual Camouflage)' 주제로 6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2013년도 '이화인 연회비 납부'에 참여해 주십시오**

동창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송료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비(삼만원)는 지로용지 대신 아래 계좌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2013년 8월 학위수여식에서 학위를 받으신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내신 입회비는 총동창회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입회비를 납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총동창회에 입회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인문과학대학

#### 국어국문학전공

강은주 공샛별 김정은 류현정 박예슬 박지선 박혜정 송성해 심인애 육명하 유성경 윤예진 이다솜 이새롬 이수희 이승혜 이종희 이지현 임주연 조세화 조수정 조아라 조연원 조은지 주희진 차슬기 홍주연

#### 중어중문학전공

강문혜 김경민 김세미 김예진 노가영 사나연 서지희 소다미 왕효진 이경아 이슬기 이채강 임준섭 최다솜 최윤진 허다희 LI MEISHU 김소현 노지희 이인애

#### 영어영문학전공

감경민 강애나 김경화 김다운 김민정 김소정 김수안 김수영 김수진 김예원 김인영 김주연 김진연 김현지 김혜지 노드보라 문혜현 박해인 송새로나 신서윤 신아름 안정은 양유나 오미연 유오리 윤여진 이인희 이정민 이지은 장혜진 정재은 조유은 주영은 지성혜 채송이 천주영 한송희 황정원 Uehara Kazumi 김유진 박지은 이소영 이은별 임은희 정지영

#### 불어불문학전공

강현정 권혜민 김고은 김은진 박소현 손예원 염정숙 육상현 이민영 이정인 이주영 이지윤 정수인 제갈영 조인영 최예온 한주희 Zhigalina Alina Nikolaevna 석지연 최유나 황선경

#### 독어독문학전공

김다혜 김보은 김선영 김유진 박지은 서유리 손연경 윤자이 이가영 이소영 이제나 이지혜 임은혜 장내형 전은진 최수진 한송이

#### 사학전공

강소연 김영주 김해진 박유은 박은미 박혜미 사현아 송민정 오지현 이기원 이슬기 이주연 이지민 전지은 정다운 김여울 황희선

#### 철학전공

김민지 김태영 김희진 박성은 박소향 박주연 신사임 유민초 이지영 조아현 고수연 박사라 이지현 조인영

#### 기독교학전공

권윤정 김수진 마한나 최현숙

### 사회과학대학

#### 정치외교학전공

김은경 김지연 나은정 문희정 박선정 박소영 박주영

박지윤 서리나 손민선 송희봉 심정현 안지은 안혜정 오유리 유혜정 윤혜련 이수진 이영경 이유나 이지수 임지윤 정혜수 최유나 한은실 한 진 황윤정 금진주 김다혜 김보은 김주연 박수연 박은미 서유리 안정은 이규리 이유경 이지은 정다운 천주영 최예은 최현숙 하시은

#### 행정학전공

강소연 고두옥 고현정 김연경 김지혜 김현아 김현주 류수민 백경주 석지혜 신은지 안주영 이강민 이승현 이연정 이정민 임소현 장영신 정다혜 한윤혜 홍지예 강동연 김새봄 김소연 김수정 김수진 박예슬 박지윤 염정숙 이정립 이지혜 조세화

#### 경제학전공

강지수 고수연 권하진 김새봄 김수정 김지혜 김혜주 남달리 노지희 류은경 문지선 박수빈 박재령 박채영 배효진 성윤혜 송미령 송정하 심혜지 안주현 안혜지 오윤주 유수인 유일민 유현정 윤혜경 이모아 이민혜 이수지 이슬기 이슬기 이정립 이지은 이혜연 이화연 임희선 장은진 전지원 정희수 조민수 조애리 조유진 조현경 최은지 최정윤 최지원 최진선 최현희 한혜윤 허민지 황선경 강다혜 강소연 강한이 고은별 구지영 권윤정 권혜란 권희연 김오민 김민혜 김선영 김수현 김여영 김은경 김지연 김지혜 김태리 김현아 김현지 김혜원 김혜지 김혜진 김희진 노선희 류수민 박영선 박윤주 박주영 박진영 변인주 부지원 서효경 성다예 성민정 소다미 송진주 송효진 스후페엘레나 신은지 안주영 양지민 염수경 오아람 오윤진 오하린 육명하 윤지영 이강민 이경아 이민희 이오숙 이윤지 이지민 이지영 이초롱 이현우

임경아 임지선 장성은 장지윤 정다혜 정민하 정예슬 조소영 조수경 조아라 조아라 조아현 주영은 지선희 최다솜 최예진 최유선 최진주 최하림 추은경 홍지예

#### 문화정보학전공

강동연 김동하 김혜진 박인영 서보미 신영은 신예원 천은정 황희선 심윤희

#### 사회학전공

강하나 강호영 김미성 김미영 백보영 백재예 위이슬 유다정 윤현경 이지민 임경아 정송희 조효진 추은경 김민지 박수지 안지영 이잎새 전은지 정수인

### **심리학전공**

김민주 김별아 김수현 김은영 김은주 김해미 노수아  
박신월 백진주 서지혜 심윤희 안가은 어미연 이슬기  
이은지 이지은 이지현 이한슬 이화진 임정은 정다운  
정소미 정우미 조영선 조이련 강명은 강지수 고현정  
구현빈 김나희 김수정 김수진 김아름 노혜은 마한나  
문화정 박민경 박지선 박혜미 백하영 안희재 유다정  
유세인 육상현 윤예진 이나래 이민지 이수희 이슬기  
이승은 이영주 이지민 이지현 이화연 임지윤 임지은  
임현주 정윤주 최수진 최현아 최혜림

### **소비자학전공**

구현빈 김수빈 문자은 박연경 오지연 이민지 이영주  
이윤지 이주은 장인라 권하진 김탄희 윤자이 이화진  
장영신 장혜진

### **언론정보학전공**

강지혜 금진주 김민혜 김여울 김유진 김진주 박수연  
박수지 방소윤 석지연 유채원 이규리 이선아 이윤지  
이일새 이지민 이채영 이현나 전 진 조수경 하시은  
GAO FEI Li Yue 공샛별 백지수 선사임 안선영  
이혜경 조수정

### **광고홍보학전공**

김진영 김혜인 박선민 박은보라 박환희 성다예  
손보경 송진주 안지영 양은선 윤선영 윤소정 윤지영  
이지수 이해경 임지은 장소을 주정경 최민지 경태송  
안해진 양슬기 어미연 윤현경 이주원 정다운 최수아

### **방송영상학전공**

경태송 김수정 김예슬 김은정 박소은 양슬기 용은지  
윤서연 윤선영 이솔미 이주원 임혜리 정도담 조완영  
최수아 방소윤 손보경 윤선영 장소을 주정경 채송이

### **자연과학대학**

#### **수학전공**

강한이 김현지 박자은 유정현 이민희 이초룡 이현주  
장성은 장지윤 정예슬 정지윤 최예진 최혜림

#### **황보예빈 백윤경**

#### **통계학전공**

권혜란 김민정 김민정 김여경 김현정 김혜지 나은진  
노선희 문성희 박윤주 백윤경 부지원 염수경 오하린  
이 숙 이유경 이윤지 임지선 정승원 정유정 조아라

자선미 최유선 최하림 하지연 문지선 인주현 유정현  
**물리학전공**

권은주 김준영 김혜진 남은주 오은경 윤성경 정진경  
한정화

### **화학나노과학전공**

고경은 김유진 문지현 박정영 윤민지 이나금 이다은  
이지수 임희경 전현지 최서영 홍수연 윤성경

### **화학전공**

노채원 박금란 손유진 최윤진

### **생명과학전공**

김민정 김예진 김하나 박꽃나라 박솔 박한솔 여정원  
이선아 이수인 이유경 이지은 정세윤 정지혜 조혜정  
최혜정 김은혜 오유미

### **공과대학**

#### **컴퓨터공학전공**

김성희 김원 김희원 박예진 소혜리 송은주 양현아  
유현지 이수민 조현정 한아랑

#### **컴퓨터학전공**

차진나

#### **전자공학전공**

권지원 김유경 김지연 김혜진 박아름 오경민 이보라  
이은영

####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박민경

#### **정보통신학전공**

홍주연

#### **건축학전공**

김현나 나희정 박수지 박주희 신동희 정선미 정혜인  
최시인

#### **건축공학전공**

김가예 박은영 왕희지 윤성애 이민선 이수현 조성연  
**환경공학전공**

김수연 김윤미 김효민 박재은 박정민 송수연 신지은  
심가영 안미정 오유미 이민희 이예본 이재윤 이효원  
정효정 진효진 최가빈 최아람 최정현 최현주

#### **식품공학전공**

권혜림 김수연 김효진 김효진 이진화 유지담 이종옥

# 신입동창명단

이현림

## 음악대학

건반악기전공

강고은 강명은 김희윤 박재희 양지선 윤호연 황진하

관현악전공

박세희 박신현 송수진 이수진 임경순 정문정

관현악과

김정은

성악전공

김수지 김예지 박세진 박소연

작곡전공

김다혜 김새봄 서희진 이지현

작곡과

이보미

한국음악전공

김정민 남다솜 안지선 한경주

한국음악과

박지혜

무용과

권유상 김가람 김나희 김동하 김유경 김지향 문윤경

정옥 조성해 최지희

## 조형예술대학

동양화전공

김현정 박선주 박소진 윤재현 정여진

한국화전공

노현정 윤슬기

서양화전공

이윤정 현정윤

조소전공

김원희 안소재 이가현 이예호

섬유예술전공

이원선 허정인 홍혜진

도자예술전공

유수연 하민진

공간디자인전공

안해지 임정수 제지현 Gao Xueling

시각디자인전공

박미라 유수아

산업디자인전공

안다희

패션디자인전공

김혜영 정지영 주한주

영상디자인전공

박유정 최혜정 이가현 Gao Xueling

의류학과

김민희 김탄희 백소연 안송미 오지연 주영민

사범대학

교육학과

강명재 꽈소망 박은진 박현아 서세아 송현주 안선영

윤지숙 이수연 이유경 이정애 이화진 임은희 최진주

현예리

유아교육과

김정득 이은지 차수연 황보화

초등교육과

김이슬 김지영 류수연 서성민 서지혜 손다정 신하은

이수진 이슬 임동완 정혜원 지다슬 최효정 강한슬지

김예전 이보람 이수연 황보화

교육공학과

김예전 김정수 김혜원 박미원 박송이 박지혜 신의경

어은지 유예솜 지정현 최혜민

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전공

강하늘 김영진 김지인 박인애

특수교육과

김현정 이은별 홍상미

영어교육과

강민정 박보경 박진영 신현빈 이소라 이소영 정안나

주혜민 최지민 허담언 허원정 혜예림 신의경 신희수

이유진 임동완

사회생활학과

(역사교육전공)

김나영 김선경 김은한 박혜주 송보경 이예은 이예은

지리교육전공

권정은 박초롱 이주현 장혜진

## **일반사회교육전공**

김민 김연하 김주리 박정은 방세린 서효경 조민아  
조현진 차지연 최민영 최수정 김영진

### **국어교육과**

강한슬지 이보람 정윤주 정은진 조빛나 현예리

### **과학교육과**

#### **물리교육전공**

김성희 김은진 박진영 이근화 임유진

#### **화학교육전공**

김가영 이유진 임지혜

#### **생물교육전공**

노유진 안지혜 윤예희

#### **지구과학교육전공**

김윤서 김혜윤 최현영 한지희

### **수학교육과**

윤지영 조수빈 한지희

## **경영대학**

### **경영학전공**

강다혜 고은별 구지영 김민정 김소현 김은혜 김지은  
김지인 김해랑 김현아 김혜림 김혜원 남슬기 노성연  
노애리 박민경 박사라 박송희 박정인 박하늬 백민애  
백소라 변인주 서현희 성민정 송주현 안희상 예윤서  
오아람 오윤진 오현경 유나선 유세인 윤예지 윤은진  
윤정혜 은예솔 이나래 이다솜 이다정 이성경 이예원  
이인실 이현우 이해련 임예지 임현주 장혜진 정민하  
정형원 조소영 조수정 조아라 조은정 조은혜 최수지  
최정하 Chen Yi Zenina Maria 강선화 강에나 김다솔  
김보람 김소희 김수안 김수영 김인영 김정은 김진영  
김태영 김해미 김혜원 김혜인 김혜지 김혜진 나은정  
나은진 노수아 노현정 류은경 류현정 문성희 박금란  
박선민 박연경 박영후 박은보라 박자연 박채영 박혜림  
박혜정 사현아 서지희 양혜민 예지희 오윤주 왕희지  
윤소정 윤여진 윤지영 이수지 이슬기 이유경 이주은  
이지윤 이지현 이채강 이채영 이화진 임은혜 장인라  
전지은 전지현 정승아 정유정 정혜수 조아라 조영진  
조현경 주영민 지정현 최수정 최진선 최혜민 하지연  
한주희 허다희 홍상미 황보예빈 황윤정

## **국제사무학과**

권희연 김다솔 박자연 박지희 이 라 전성미 전지현  
조혜령 혜정문 강은지 박소현 박인영 박정영 오미연  
임소현 임예지 허원정 홍주연 황정원

### **국제사무학전공**

최유경 손예원 유민초

## **건강과학대학**

### **체육과학과**

김지희 류가양 박지선 백하영 봉예나 송효진 안혜진  
안희재 오상희 정지영 조가은 최지선 한유림 한윤애  
한주희 홍해나

### **식품영양학과**

장선희 고유영 김아람 김지연 박주현 송민정 신혜연  
양지민 유영란 이해진 임진영 장현정 전선경 최민원  
최현아 김민정 봉예나

### **보건관리학과**

김지민 김지인 박영후 이보람 이주연 한정미 황수현

### **스크랜트대학**

#### **자기설계(스크랜트-통합직문화연구)전공**

김진주 서이레 임정은 임준섭 천은정

#### **자기설계(스크랜트-디지털인문학)전공**

임혜리 정재은 조완영

#### **자기설계(스크랜트-사회과학이니셔티브)전공**

강지혜 김별아 김하나 박수연 박신원 성윤혜 이민혜  
이수진 이주연 이해원 정희수 최진선 한송희 황수현

#### **자기설계(스크랜트-사회와정의)전공**

김경화 김예원 이승현 조애리 조연원 한은실

### **국제학전공**

김승연 김태리 박서현 박혜림 서이레 송아리 스후페  
엘레나 안혜림 오수현 윤하은 이겨레 이지윤 이현정  
이혜원 정승아 조영진 조예은 진명 KIM LESILE  
HAESUN 노채월 이인희

## **예술대학**

### **성악전공**

이해든

# 신 입 등 장 명 단

## 한국음악전공

강은지 예지희

## 동양화전공

경소현 김지은 김지혜 박한솔 배정윤 이유경 이인애  
정다솜 정윤정

## 서양화전공

김세은 노혜은 문보람 안주희 유 라 이주현 이지선  
장수정 허소임 홍지연

## 조소전공

유영준 이지현

## 섬유예술전공

김소정 김수진 박주희 배해랑 백예린 이재연 조은진  
최선경 허윤아

## 도자예술전공

김도희

## 공간디자인전공

고유리 김민자 김희주 유누리 정예진 최정원

## 시각디자인전공

곽하늘 김혜진 백승은 성지연 임성희 한혜원 김미연  
이주영

## 산업디자인전공

정수연 홍민영

## 패션디자인전공

권서린 나장은 박지영 이상정 조선희

## 영상디자인전공

김지현 예지영 윤민지 최귀랑 경소현 이유경

## 의류학과

강재현 기인정 김민선 김보람 김아름 김유진 김지희  
문혜진 백지수 양혜민 이예원 이지윤 이해연 김지인  
이다솜 이슬기

## 무용과

홍민영

## 법과대학

### 법학과

권오영 김가희 김민승 김성은 김소연 김연수 김연정  
김은옥 김은주 김은진 김지연 김하늘 김혜연 김효인  
김희윤 김희선 박수경 박슬기 박영선 박정민 박지원  
신영미 신유선 신현선 신혜선 신희수 양진성 여유리

윤인혜 이승은 이예람 이유정 이진선 임여규 정다은  
정미경 정선진 정수빈 정주원 정하윤 조혜인 최원지  
최윤경 최은혜 최지혜 하희진 한빛나 김경화 안지은  
이혜연 지성혜

## 체육과학대학

### 체육학과

장한나

### 무용과

김소희

## 생활환경대학

### 식품영양학전공

김효진

### 연계전공

#### 동아시아학전공

강호영 김소정 김영주 백재예 이영경 조혜령

#### 미국학전공

이지수

#### 유럽학전공

김은진 한주희

## 미술사학전공

강은주 기인정 김수빈 김유진 김은정 나희정 박소진  
배정윤 안주희 윤선영 이 라 이은지 이인실 이지선  
정예진 정우미 현예림 현정윤

## 여성학전공

서지혜 송민정 차슬기

## 멀티미디어학전공

박지선 박한솔 성지연 윤서연 장현정 정도담 한정미  
전문영어전공

김연경 김은영 송성해 심정현 안혜림 조유은 한송이  
한진

## 북한학전공

남달리 이연정 정송희 한윤혜

## 한국학전공

박주연 안혜림

## 인지과학전공

정진경

## 도덕 윤리교육전공

김태영 김희진 박소향 박은진 임은희

## 과학기술경영전공

권은주 김가예

## 재무경제전공

김혜림 박지희 장은진

## 공통사회전공

권정은 김나영 김선경 김연하 박혜주 방세린 서효경  
송보경 이예은 이주현 조민아 조현진 최수정

## 공통과학전공

김기영 김성희 김윤서 김은진 김혜윤 노유진 박진영  
안지혜 윤예희 이근화 이유진 임유진 임지혜 최현영  
한지희

## 아동학전공

강민정 김민주 김준영 류가양 이지은

## 바이오인포매틱스전공

이유경

## 일본언어문화전공

고현정 김민선 이제나 조가은 조은정 주희진 최지선  
사회복지학전공

김정민 백진주 이보람 조영선 조효진

## 석사학위 수여자명단

### 대학원

#### 문학석사

##### 국어국문학과

권혜린 신연수 오윤경 이민 이지혜 정고희

Batyrikhanova Gaukhar Guo Qian Xing

XIAOFANG Xu YE

##### 중어중문학과

김지현 유연주 전소연 최수령

##### 영어영문학과

김수민 문샛별 우보미 이소영 장유진 정윤주

##### 기독교학과

문한나 백인주 정혜영

##### 철학과

이수빈

## 사회과

윤미영

## 미술사학과

김모래 김은주 김진아 박경화 우수현 이수미 정승은  
조은진 함차랑 혜민혜

## 소비자학과

권순일 김태향 박소현

## 여성학과

이미경 조누리

## 교육학과

김신아 손주희 이미선 이지민 이해영 최유진 한수민

## 유아교육학과

박세령 안혜정 정은숙 하민경

## 초등교육학과

이지영

## 교육공학과

김남희 김정현 김지현 김지현 김혜림 윤미현 조선유  
특수교육학과

김은윤 안혜신

## 영어교육학과

강진경 송은정 한보람

## 사회과교육학과

김현덕 박재희 윤노아 조나혜

## 국제사무학과

김민정 김이례 김지현 변민경 송인선 이강희

## 수학교육학과

송현정 이수연 이현희 장희정

## 동아시아학연구

이지은

## 정치학석사

### 정치외교학과

김명아 신혜정 우세라 우은희 전세영 최슬아 CAO

YANYAN

## 행정학석사

### 행정학과

백선희

## 경제학석사

### 경제학과

김안정 김지민 김해람 박경은 이소라 이호라 임연규

# 신 입 등 칭 명 단

한윤선	경영학석사
KOVALENKO SERGEEVNA YULIA	경영학과
<b>문현정보학석사</b>	박민혜 박진영 윤소정 임현정 한세희
<b>문현정보학과</b>	<b>음악치료학석사</b>
박소윤 박열매 이수지 정유나 최보영 최연진 최예진	음악치료학과
<b>사회학석사</b>	한인희 JENNIE MIN
<b>사회학과</b>	<b>이학석사</b>
김승민 이상흔 이정은 전주현 전혜진	수학과
<b>심리학석사</b>	권미화 김빛나라 김현희 마상인 이미희 장윤경
<b>심리학과</b>	<b>통계학과</b>
김은빈 김은정 김행복 민분경 박보영 박테레사	김나영 박소영 오현지 이현주 장은주 최유경 홍수연
서지희 심기선 우다빈 우연화 유성은 이유미 이정민	홍정화
이정원 임재희 임지영 임지은 정승아 조현주 조혜령	<b>화학 나노과학과</b>
홍수연 황여주	강희경 고은정 김수진 김수진 김지언 성은규 신수인
<b>언론학석사</b>	유혜인 이장미 이정하 이지은 조윤경
<b>언론홍보영상학과</b>	<b>생명과학과</b>
김은혜 류지연 박유진 소담이 연지영 이선영 이은미	강선경 김명신 류다은 정다운 최미나
장기선 장은령 장현지 표시영 하태현	<b>생명 약학부</b>
<b>아동학석사</b>	권혜지 안지은
<b>아동학과</b>	<b>과학교육학과</b>
강하라 김문선 김은실 노지운 변해진 유설희 윤남정	김성은 김현정 신한나 이슬희 이영주 이우정
임소연 정연의 조수현	<b>식품영양학과</b>
<b>교육학석사</b>	김은주 김자원 이선영 이현아 임은미 전여진
<b>국어교육학과</b>	WANG LIN
박유진 변경가 Ding boyaa	<b>에코과학부</b>
<b>영재교육</b>	노경아 황화경
김선주 김성지 윤미경	<b>의과학과</b>
<b>언어병리학석사</b>	이혜진 최예진
<b>언어병리학과</b>	<b>바이오융합과학과</b>
고아라 광은정 방은실 백재은 안하영 오다연 이상은	김윤미
이하나	<b>뇌 인지과학과</b>
<b>언어병리학</b>	반순현
라은영 최은정	<b>약학석사</b>
<b>법학석사</b>	약학과
<b>법학과</b>	김현지 도재경 박건화 박민희
손지영 신주희 이미영 장선미 전소현 현경의	<b>보건학석사</b>
YOODEE NARISSARA	<b>보건관리학과</b>
	안예지 조가희 홍승연

<b>간호학석사</b>	<b>조형예술석사</b>
<b>간호과학과</b>	<b>조형예술학부</b>
김정은 김현영 이명현 이양경 임세미 최수희	강수진 김준희 백주영 신영은 이자용 이지영 전현지
<b>의학석사</b>	정진아 천수진 황신실
<b>의학과</b>	<b>디자인학석사</b>
김성희 김세화 박진 송도경 이선희	<b>디자인학부</b>
<b>공학석사</b>	고예린 김은정 김현정 신지연 신혜선 안수영 이민정
<b>컴퓨터공학과</b>	정설경
변미리 양혜경 이경아 흥주연 CHEN XINYI MAI	<b>의류학석사</b>
THI HONG NHUNG	<b>의류학과</b>
<b>전자공학과</b>	고아라 고영민 권수희 김예지 김희수 신수연 유혜진
권민혜	이은진 이지민 이지은 정승연 천호정
<b>건축공학과</b>	Piao Huihong Wang Yan
김영희	<b>무용학석사</b>
<b>환경공학과</b>	<b>무용학과</b>
김인선	이슬 정우정
<b>식품공학과</b>	<b>무용석사</b>
금선주 김소영 김은정 배예원 배유경 서지은 양지혜	김호정 양민주 여길랑 유재운 최시원
이시월 인수연 횡희정	<b>체육학석사</b>
<b>지속가능시스템공학</b>	<b>체육과학과</b>
변예슬 유정민	이다은 이세경
<b>디지털미디어학석사</b>	<b>지역학석사</b>
<b>디지털미디어학부</b>	<b>지역연구</b>
김다혜 안진희 유지은 유현지 윤선미 이규호 이온정	정승
임현정	<b>생명윤리학석사</b>
<b>음악학석사</b>	<b>생명윤리정책</b>
<b>음악학부</b>	김시형 김효신 홍세훈
박희라 조윤영 한정수	<b>국제대학원</b>
<b>음악석사</b>	<b>국제학석사</b>
<b>음악학부</b>	<b>국제통상</b>
강보영 김예지 김지은 나지안 모현아 민초롱 박소영	어혜정 KIM YOORI
박안나 박지연 박초은 박혜림 백선영 백지연 안은수	<b>국제경영</b>
오아미 윤상미 이사랑 이상미 이시은 이자경 이정숙	김윤미
이한다슬 전윤정 전현정 정은진 정은희 정혜승 정혜	<b>개발협력</b>
원 조현아 최고은 하고운	김윤정 배정은 오예지 주선영
<b>조형예술학석사</b>	ABAGODU,Amina Mohammed ABURAMARY
<b>조형예술학부</b>	ASEKENYEALVAREZ CHEVEZ,AnaGabriela
나기현	

# 신 입 등 칭 명 단

ATULUK,Francisca BERMEO	한일통역
VELASQUEZ,MaritaElizabeth BISANDA,Enikia	장은혜
Wilfred CHEMJONG,Gomadevi	<b>번역학석사</b>
CORDELIA ANDZEINGYI EPSE ESENI	한불번역
BANJONG, Ndagha DOROSHENKO,	윤예진 이선한 황지혜
Oleksandra	<b>사회복지전문대학원</b>
ENKHEE, Nomin HAMANDISHE, Loveness	<b>사회복지학석사</b>
Lynda HUSNI, Saba Ahmed Ibrahim	<b>사회복지</b>
KALYBAYEVA, Aizhan KHATERCHI, Chiraz	강부자 구미정 권자은 김미경 김정은 백은지 오은정
KIROBI, Mary Wambui	이미우 이새미 이연주 이유리 장 미 전혜성 정수정
MEKURIA,Tsigereda Woldemichael NKWENTI	정영주 조남진 최미선
NGUEG조 EPSE ASHU, Veronica	<b>경영전문대학원</b>
ODEY, Patience Nka OWIREDU, Elizabeth	<b>경영학석사</b>
QADER, Shokhan Sherzad Qader	<b>경영학</b>
SHEPELVA, Daria SHIJIRBAATAR, Undraa	공보현 꽈민경 김성실 김은심 김주연 김지연 김훤샘
SHOBNOM, Mst Sheren Swe Swe Linn	남윤지 박은지 배소영 변윤희 서민석 선우현정
SYENGO, Rachel Maai TABE, Nyaradzo	신명순 안서진 안수진 안유진 우상미 이경은 이안생
TIKOMAISUVA, Bulou Keleni Gutugutuwai	이지숙 이지애 정아미 홍주연
WALGAMA RANASINGHE ARACHCHIGE,	<b>재무</b>
Lalani Pradeepa Ranasinghe	김희진 유성혜 정지혜 주유나
WINDARFLSHERLY PONTI	<b>회계</b>
<b>국제관계</b>	이해미
박소영 오시연 이평화 DERNOVSEK, Kimberly	<b>마케팅</b>
Frances Robert, Gabrielle Emilie	신유현 신은정 이명진 이수영 이자혜 조아라 최고야
Charlotte	<b>경영정보시스템</b>
<b>한국학석사</b>	조연정
<b>한국문화</b>	<b>인사조직전략</b>
ALIMOVA, NAGIMA	엄예원 최희진
<b>한국어교육</b>	<b>금융MBA</b>
김단아 김대옥 김민희 백영경 정혜란 황재윤	구민정 김채민 박경아 윤수연 이지현 이현영 홍화진
CHEN, LiHsuan HE, Wengi KOMATSU,	<b>법학전문대학원</b>
HANAE	<b>법학전문석사</b>
<b>통번역대학원</b>	<b>법학과</b>
<b>통역학석사</b>	조승연
<b>한영통역</b>	<b>교육대학원</b>
고선숙 고아람 고윤희 공혜인 문바다 오윤진 우승곤	<b>교육학석사</b>
이경민 조재경 한주영	국어교육
<b>한중통역</b>	김지은 박지연 박지윤 박지인 배민영 서유나 유혜진
구경운 김수희	이새별 이송이 임주연 정연주 정영재 탁윤아

<b>수학교육</b>	<b>유아교육</b>
김명혜 김혜미 박안나 박지원 이상은 전보람 정빛나 한유정	구양희 김지희 김혜림 노승현 박지노 오영란 이경수 이순배 이현경 이효진
<b>역사교육</b>	<b>초등교육</b>
김혜정 안혜현 최보람	김문영 김현정 이경임
<b>지리교육</b>	<b>특수교육</b>
박지영 한상미 황은선	남혜진 신지혜 이현주 천한나
<b>일반사회교육</b>	<b>교육과정</b>
김하영 김현주 양지연 유혜진 천지영	김다미 박영진 최은주
<b>화학교육</b>	<b>상담심리</b>
강윤서 구자선 김슬기 김지혜 이보라 이윤영 진송희 최지영	김미옥 남현주 민지현 박경희 윤상영 아주원 조지영 지영진
<b>생물교육</b>	<b>교육공학</b>
김미영 김영은 김지혜 김희영 마혜린 박보배 박선희 심귀리 안새미 우수향 우예슬 이현정 임영후 장보름 정고은 정슬아	권혜진 김정은 김해진 배지혜 서주연 이소은 이재영 전수연
<b>음악교육</b>	<b>한국어교육</b>
김다솜 김민경 김민채 김수민 김지연 김혜미 안여경 윤미선 윤소라 이미소 이애리 주미연	강지영 김혜원 류윤정 박영지 서아람 석영민 원하늬 이해지
<b>미술교육</b>	<b>음악치료교육</b>
강보경 김민선 김정은 김지영 연제린 오은교 유주연 유지혜 윤성연 이은주 이정은 임주연 임필효 하예림	김현경 조현아 채린
<b>체육교육</b>	<b>디자인대학원</b>
김민지 김선아 김정은 송정은 신은정 우현주 아주현 장미연 전보라	<b>디자인학석사</b>
<b>가정과교육</b>	<b>의상디자인</b>
송은의	김민주 김희진 박소연 박혜수 손성희 윤지영 조윤수
<b>도덕 윤리교육</b>	<b>섬유디자인</b>
조민선	강지희 김미현 안혜량 한은혜
<b>영어교육</b>	<b>광고 브랜드디자인</b>
김정심 김현정 박서영 박초롱 이한나 이해정 전보람 정슬기 최지은	고운정 김민정 김슬기 김진미 이보영 이지혜 이해린 임주미 정미정 최유미 하영은 한승연
<b>불어교육</b>	<b>User Experience디자인</b>
조일선	고유미 김경연 김효선 최지원
<b>중국어교육</b>	<b>디자인매니지먼트</b>
박미진 장채리	경미연 김서원 김신애 김은주 김현주 김희정 남기해 박경아 박선화 박종서 송승희 송 이 심영옥 이재경 이정선 정성희 정은애 정찬진 한민지
<b>환경교육</b>	<b>신학대학원</b>
김미경 문경은	<b>신학석사</b>
	강민경 공선옥 김창희 방실 여진아 이숙희 이슬기

## 신 입 등 칭 명 단

이은주 이현경 정수안 조주영 한송희 함  
정은 Diadem Rose Camba-Jontarciego  
**정책과학대학원**  
**정책학석사**  
**공공정책학**  
권하늬 김지인 김햇살 박수경 박혜리 신지숙 신지혜  
우동희 이민경  
**경제학석사**  
**공공정책학**  
여희정  
**언론학석사**  
**언론홍보학**  
김은주 김은진 송유경 최혜경  
**기록관리학석사**  
기록관리학  
강선아 권미진 김은진 김지은 서혜인 신인화 최다혜  
**공연예술대학원**  
**음악학석사**  
**음악공학**  
박은주 박은진 박지혜 심보송 우희진 이해령 조은정  
**피아노교수학**  
김꽃님 김연주 김예나 김은지 남정현 박소영 박은주  
이고은 이윤미 임어란 장선희 정재연 최금화 최민경  
황지원 LEE SEONSOOK  
**음악예술경영**  
강명신 김연정 박봄 박수훈  
**무용예술석사**  
무용공연지도  
권소라 김인희 조현경  
**조형예술석사**  
무대미술전공  
최윤희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약학석사**  
**임상약학**  
강지영 김고은 김현지 박도영 송승윤 안소연 안현영  
오지운 윤선혜 윤지영 이은미 이은정 진혜경 최유리

**영양학석사**  
**임상영양학**  
고선영 곽정은 구상미 김미향 나주리 윤옥희 이지민  
이현정  
**간호학석사**  
**임상간호학**  
김선아 김홍지 오현경 이민주 정선옥 최은미  
**임상치의학대학원**  
**치의학석사**  
**임플란트치의학**  
김정은  
**임상교정치의학**  
박자형 박재안 이해준 전경인 정유란 최신애 하지영  
한우리 흥효선  
**임상소아치과학**  
이효진  
**구강보건학석사**  
**치위생학**  
김보영 김은희 서민희 육신영 이아름 정은영 홍주희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TESOL석사**  
**TESOL**  
김민선 민연홍 오연진 오혜일 이상은 임승래 임홍주  
정경 정은나 황크리스틴윤아  
**국제중국어교육석사**  
TeCSOL  
김효정 장은주 최윤영  
**한국어교육석사**  
TKSOL  
강예지 김나나 김정민 류민정 심나빈 오연경 오윤정  
윤지원 장은정 전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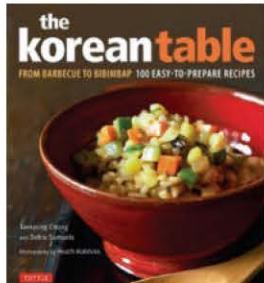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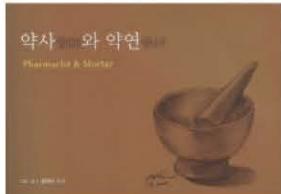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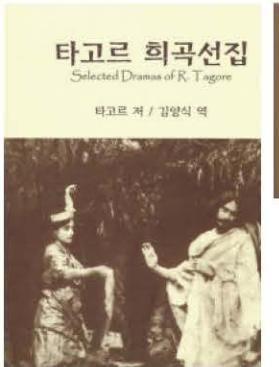
열쇠를 원하는 상대는 많은데  
열쇠를 주고픈 상대가 없다



엘리트를 위한 최고의 결혼정보회사 에스노블은 차별화된 네트워크와  
철저한 엠바이 관리로 결혼문화의 고급화와 협력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다른 결혼을 위한 멤버십클럽-(주) S.Noble  
Elite Network

02-3445-4777 [www.snobie.com](http://www.snobie.com)



김양식(영문 54)

김양식 역음/

### 타고르 희곡선집

인도의 사생 라빈德拉나트 타고르가 발표한 희곡을 모아 엮은 책으로, '고행자', '왕과 왕비', '찌뜨랑가다', '봄의 윤허', '찬다리끼' 등의 희곡들을 수록하였다. 공연 사진과 함께 타고르 연보, 역사의 악력을 함께 담았다.

김옥녀(약학 61)

김옥녀 글과 그림/ 성모병원

### 약사(藥師)와 약연(藥研)

김옥년(마리데보라) 수녀의 연필 스케치 화보집으로 성모병원 개원 77주년을 맞아 저자의 약점구 스케치를 글과 함께 수록하였다. 약사들의 상징인 유발, 유봉을 소재로 명동 성모병원의 전경과 병원 정문 현관 위의 소화 대레사 상, 동글루르드 성모상, 프라하의 아기 예수상, 십자가 등 추억과 종교심이 어울려 담긴 글과 그림이 담긴 책이다.

정태경(사회복지 75)

정태경 지음/ 미국출간

### the KOREN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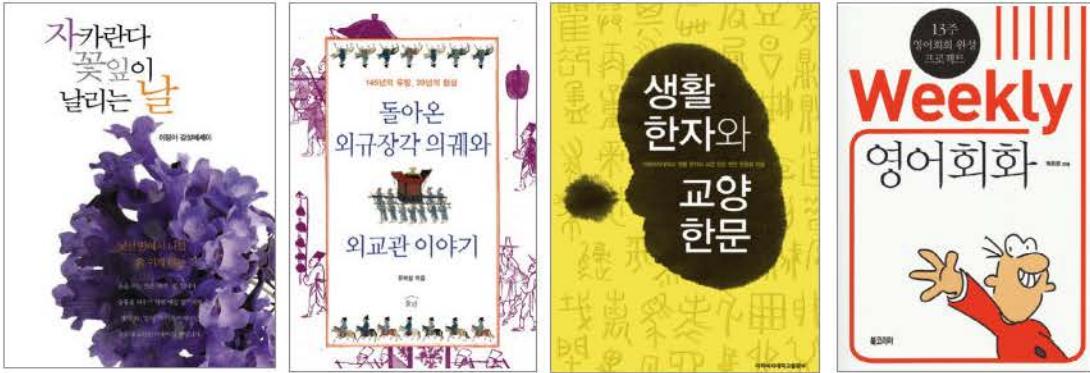
일본에서 요리연구가로 활동 중인 저자가 2008년 출간 이후 전 세계에서 판매 중으로 한국 전통 음식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일본에서도 식생활 습관이 비슷한 같은 동양권이면서 다른 한국 음식을 알리기 위해 2005년 '한국의 정진요리', 2006년 '한국미인식'에 이어 지난 3월 '한국의 밀반찬'과 8월에 '지지미100'을 출판하여 밀반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일본인에게 한국의 밀반찬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고 있다.

김현숙(영어교육)

김현숙 지음/ 문학나무

### 먼 산이 운다

현대의 과학문명은 우주정복, 어느 별로 이주하게 될 인간 미래를 약속하며 서정의 퇴화를 부추기고, 디지털 시대의 속도가 인간 지능을 비웃고 있지만, 김현숙의 소설 '먼 산이 운다'는 절대로 그 속도의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을 영혼의 온기를 그리고 있다. 혜인에 대한 소박네기 속모의 사랑은 슬픈 숙명처럼 혜인에게 각인되어, 한여름 산속 웅덩이에서 속모와 혜인이 멱을 감는 장면은 단연 암권이다.



### 임정아(가정 77)

임정아(미국명 이정아) 지음 / (주) 푸른길

### **자카란다 꽃잎이 날리는 날**

이 책은 1985년에 도미한 임 동창(재미수필문학가협회 이사장)의 세 번째 수필집이다. 모두 57편의 수필이 수록돼 있는데, 최근에 고통스런 투병의 시련을 겪으면서 어렵게 써낸 7편의 글도 포함됐다. 진솔한 가족상, 이민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감수성, 풍부한 언어, 주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인간애 등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이 수필집은 저자 특유의 구어체이면서도 간결미가 뛰어난 단순 형식의 글로 풀어내어 아주 쉽게 읽힌다. 전편에 걸쳐 잔잔한 감동이 전해진다.

유복렬(불어교육 85)

유복렬/ 눌와출판사

###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

유복렬 부총영사가 1997년부터 시작한 자신의 외교관 생활 전체에 걸쳐 운명처럼 같이했던 국가적 현안인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을 큰 줄기로 하여 저자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외규장각 의궤를 처음 보았던 순간부터 시작해 의궤가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까지, 의궤 반환 협상 중 만난 여러 사람들과의 다양한 인연, 넘어야했던 숱한 고비, 개인적인 감회 등을 생생하게 그려낸 이야기이다.

이은영(국문), 김현미(국문), 배주연(국문) 최재남, 김동준, 이은영, 김현미, 배주연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생활 한자와 교양 한문 (개정판)**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자를 배우고 학문으로서의 한문을 익히는 데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양 한문 교재로, 2008년 발간된 초판을 새롭게 구성해낸 개정판이다. <생활 한자와 교양 한문> 수업을 이끌어온 교수진과 강사진이 중심이 된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한자와 교양 한문 편찬위원회가 기획과 집필을 맡았다.

박은영(영어교육 98)

박은영 지음/ 북코리아

### **WEEKLY 영어회화**

13주 동안 영어회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 영어회화 교재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상황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표현들을 주력해 배울 수 있다. 기본이 되는 표현들부터 응용으로 넓혀가는 세세한 내용까지 단계적으로 담았다.

# 2013 ‘이화인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가려 합니다.

아름답고 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으시면

11월 25일(월요일) 오후 6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으로 오십시오.

‘이화인의 밤’ 행사는 우리가 이화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고 선후배, 동기 동창이 한자리에 모여

추억과 우정을 나누며 함께 한 해를 보내는 즐겁고 기쁜 송년의 밤입니다.

‘아름다운 이화인상’ 시상식과 함께

멋진 음악회와 풍성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대학, 과, 학부 동창회에서

티켓을 미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총동창회사무실 02-3277-3386, 3387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